朝鮮日報
夕刊 九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별표고무

國民政府各部署를 各地分散命令
重慶、昆明、貴州等地로

【香港八日發同盟】漢口政府는 벌서 僻地移轉을開始하엿다고 하는데政府所在地를 一個所로하지안코 重慶、衡陽、長沙、貴州、桂林、昆明에 散在식힐方針으로 軍事委員會만은最後까지 漢口에남어잇고 軍政部는 昆明에移轉코저 準備에 着手하엿다고한다 我軍의粤漢廣九兩線及 廣東空爆으로말미암아 廣東香港方面에의 軍需輸送路가 거의 斷絶된結果 鐵道部가 얼마前에 香港에 設置한辦事處도 드듸여 軍需輸送上의 機能을일케되야 香港辦事處는 河內에 移轉키로되고 이미 購入한 鐵道材料自動車는 香港으로부터 河內에 再輸送그네로 僻地에 待機시켜 河內로부터 漢口方面으로 輸送할것으로보인다

【上海八日發同盟至急報】國民政府는 漢口의危機가 마츰내 切迫되엿다고하야 九日漢口에 殘留한 政府各機關에對하야 四川省重慶、雲南省昆明으로 各其移轉하라는 旨의命令을發하엿다 漢口의守護가 困難한境遇에 備하야 압서부터 僻地遷入計劃을 進行하고잇든 國民政府가 마츰내 最後的實行에옮긴것이다 이때문에 國民政府各機關은數個所에 分散되여 名實共히 地方政權으로 轉落하게되엿다

柳園口一帶占領

【開封八日發同盟】開封占領後敗軍의追擊을 繼續中인岩倉○○部隊는 八日午前十時開封北方八키로地點黃河畔柳園口를 攻擊하야 附近一帶를 占領하엿다

黃河交通路 我部隊確保

【開封九日發同盟】八日我○○部隊가 占領한 ○○○는 道口鎭으로부터 封邱를지나 黃河에 通하는 街道의一點으로 軍事的으로 特히 重要性을 가진곳이다 이곳은 往昔 南京、北京을 通하는 大街道이든곳으로 黃河를 끼고도는 交通路確保로써 我軍 今後의作戰에 極히 有利하게되엿다

國府苦惱莫甚 武器缺乏으로

【香港八日發同盟】隴海線을 喪失하고 大混亂에陷한 國民政府首腦部는 廣東爆擊때문에 南方으로부터의 輸送路가 全혀 停止되여잇는때문에 益益 武器의缺乏補充에 多大한 苦惱를맛게되야 蔣介石은 現在 各地方軍隊에게 이미 配給한 武器를中央으로 返還하라고 命令하엿다 이것을 도로가저다가 前線의武器補助에 充當하고잇다 그러나 이로써 地方雜軍에게 非常한不滿을 사게되여 延하야는 國民政府의 統制力에 重大破綻을招來하게 되리라한다

米總領事抗議 嶺南大學事件으로

【香港八日發同盟】八日朝我空軍部隊는 廣東空襲을敢行하얏는바 그때爆彈二個는 河南의嶺南大學附近二百米되는 地點에落下하야 大學建物은 그震動으로 動搖하엿섯스나 何等被害는업섯다 그런데 米國廣東總領事로부터는 八日後二時 中村香港總領事에게對하야 同建物은 米國建物임에도 不拘하고 爆擊하는것은不當하다는 旨를 述하야 抗議하여왓다 中村總領事는 이를 本省에 傳達한바 同建物은米國資本으로 建設되여 目下三十二名의 米國人三名의 英國人 一名의 獨逸人이 居住하고잇스나 同校經營에當한 董事會는 支那人으로써 大部分이 構成되여잇서 純然한米國所有建物이라고는할수업다 民國十年에는 廣東省政府로부터 三十萬元을支出하야 農科大學을設置하엿고 其後도 每年十萬元을 支出하고잇는것으로 게다가 爆擊할때는 靑天白日旗를 屋上노피揭揚하야 分明히 支那支配下에잇는旨를 表明하고잇섯스므로 我爆擊의目標로된것은 從來의例에비치어 支那軍事當局이 防禦建物로써 使用하고잇섯든것으로 推定되여 當然한것으로 觀測된다

英皇帝御誕生日 總領事館서祝賀式

六月九日은 英國皇帝陛下御誕生日이므로 京城英國總領事館에서는 在京各國總領事 其他名士를招待 午前十一時부터 祝賀式을 開催하엿는데 總督府에서는 大野政務總監、松澤外務部長이參列하엿다

包圍된鄭州城內 避難民으로大混亂

【鄭州八日發同盟】AP鄭州來電에依하면 日本軍의 鄭州肉薄으로城內는 大混亂을招來하야 避難民으로 大混雜을이루고잇는바 洛陽方面及漢口行 最後的避難列車가 出發하여 미처타지못한市民은 온갓交通機關을 利用하야 鄭縣安全地帶를 目標하고 避難하는中이다 城內의 敎會病院에는 아직英、米、뉴질낸드人各一名이 殘留해잇스며 開封에도五十九名의 宣敎師가 남어잇서 市民救濟에當하고잇다

開封逆襲敵軍 我反擊으로潰滅

【開封九日發同盟】我渡河部隊의 開封攻略에 敗退한敵은無謀하게도 昨八日二十四師、百四十師、四十二師의 約一萬으로써 逆襲하여왓다가 我反擊에 殲滅되야 遺棄死體約二千을남기고 西方으로 敗走하엿다 그리고 이戰鬪에서 我軍에게도 若干의損害가잇섯다

漢口外國人避難狀況

【京城八日發同盟】隴海線의 日本軍作戰이 進捗됨에따라 漢口市內는 極度의混亂에 빠젓는때 八日京城에達한 漢口在住外國人의 避難狀況에 關하야 如左히報道하고잇다 漢口市民은 日本軍의 進攻을 두려워하야 避難을 開始하고잇는데 漢口在住外國人들은 이지음 一般市民이 避難하려하나 列車의 便宜가全然업는 狀態이므로 各國領事는 모든方法手段을 講究코저努力中이다 日本軍側이 欲求하는 保障을할수업슴으로 非武裝地帶設置問題는 事實上放棄되엿다 드듸여 危險이切迫되면 外國人은 佛租界에 避難하든지 揚子江上에 배를띄우고 戰禍를避하든지 하게될것이다

時事解說 발틱五國中立條約

[illegible] 國際動向은 [illegible] 係當事國間의 [illegible] 에 끄치지안코 歐洲 全歐洲問題로 化할性質의것이만큼 이것은 最近에나타난 더波瀾的紛爭[illegible]

◇

明去月廿七日 丁抹、芬蘭 아이스랜드、諾威、瑞典等발틱五國代表는스톡홀름에集合하야 過般來交涉進行中이든 中立條約에 正式調印을 [illegible] 世界主要國의 [illegible]

◇

[illegible] 立的 態度를 取하려는것이다。

(月城)

開封城을 砲擊中인 我砲兵部隊

法住寺參觀後 槐山郡廳向發 南總督忠北視察第二日

【報恩電話同盟】報恩旅館에서 一泊한 南總督은 九日午前八時 먼저 俗離山 法住寺를 中心으로 附近의名勝을 求景 同寺院關係者에게 朝鮮佛敎의 奮起를促한後 同九時二十分發 槐山郡廳에 赴하엿다 槐山郡廳에서는 때마츰 敎育狀況視察次 來道中의鹽原學務局長도 參列 廳員에게訓示를하고 點心을 마춘後 午後는 南總督 鹽原學務局長 同道하야 沿道視察로 敎育狀況及農村을 視察하고 上芼面溫泉里水安堡에 一泊할터이다 그리고明十日 南總督은 主로 忠州、陰城兩郡下의 鑛山方面을視察 天安으로가고 鹽原學務局長은 忠州에向햇다가 同日夕陽天安에서 總督과한車로 午後七時半 京城驛着歸京할豫定이다

首相을中心으로 關係閣僚會議
九日、首相官邸에서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 今回內閣改組를 契機로支那事變處理에 關하야 關係閣僚會議를열고 對支國策의 遂行에 邁進할 大方針을決定하고 그 第一着手로서 九日午後一時半부터 首相官邸에서 近衛首相을中心으로 宇垣外相、池田藏相兼商相의 三閣僚會議를 開하야 支那事變을 中心한 國際情勢와 여에 對應한外交方針及財政經濟策에 關하야 自由討議를 行하엿다 이 自由討議는 宇垣、池田兩閣僚가 모두 主管省大臣으로서의 立場을 떠나 國務大臣으로서 大所高所로부터 東洋平和를 確立할國策遂行에 邁進하기를 期하려는것으로 對支策의諸問題에 關하야 外交內政各方面에 亘하야 重要意見을開陳하엿는데 이關係閣僚會議는 今後每週一回式열리로 板垣陸相、米內海相도 隨時出席하야 自由討議에 參加키로되엿다

(寫眞上으로부터 近衛首相、宇垣外相、池田藏相兼商相)

主力艦制限方式
四萬五千噸에口徑十六吋砲
英政府近近發表

【倫敦八日發同盟】英米兩國政府는倫敦海軍條約에스카레이터ㅣ條項援用을決定한以來 主力艦의制限方式에關한 協議를거듭하고잇든바 마침내 雙方의意見이 一致되여 來十五日英國政府는 定例閣議後 正式으로 發表하게될것으로觀測된다 新制限方式은 噸數四萬五千噸 備砲口徑十六吋인바 仄聞하건대 當初米國政府는 備砲十八吋를 企圖한模樣인바 最近에試驗해본結果 十八吋砲는實戰上반드시 效果的이아닌것이判明되엿스므로 結局파나마運河를 通過할수잇는 最大限인 四萬五千噸十六吋砲를 搭載하기로하고 一方英國의同意를어더新制限方式의成立을보것이다 英國政府로서는『로드네』及『넬손』이速力二四、五노트임에反하야 主力艦의速力은二十노트前後로 備砲도兩艦이 主砲九門을 全部艦前方으로集中하여잇는데 對하야 十門인境遇에는 二連裝四、十二門인境遇에는三連裝 二個를 前後 兩方에 裝備하게되여 造船所는「캐멀파스」島의「크라이드뱅크」에서 一隻式 建造될模樣이다 그리고通般追加豫算으로 新主力艦裝備費는十九萬五千磅을 計上하엿슴뿐임으로 거듭豫算을 追加하기爲하야 起工은 一九三九年四月頃에될것으로 觀測된다

米海軍航空局長言明 優秀軍用機建造

【華盛頓八日發同盟】米國海軍當局은 巨大主力艦建造와 아울러 海空軍擴充에 熱中하고잇는바 海軍航空局長 쿡少將은 八日海軍省은 近近 重量五十噸에 達하는 世界最大의 軍用機建造에 着手할意向이라는旨를 左와如히 述하엿다 現在 米國 最大의 飛行機는 重量四十二噸의 아트랜틱·클립퍼ㅣ機인바 海軍省은 다시 이보다 優越한 重量五十噸되는 世界 最大軍用機를 建造할 意向이다 이巨大한軍用機가 完成되는날에는海軍作戰에 及하는價値는 實로巨大할것이다 右巨大軍用機의 性能은 詳細치안으나 搭乘人員十名乃至十五名 航續力五千哩를超過하는優秀한性能을 가질것이라한다 이에要하는 建造費는 實로二百萬弗인바 目下下院歲出委員會에서 審議中인 海軍追加豫算中에서 支出될것으로 觀測된다 海軍當局은 다시 今後數年間에 이와同樣의 巨大한軍用機十五臺를建造하야 巨大한空軍部隊를組織할意向이라한다

체코政府 在營年限延長

【프라하八日發同盟】체코政府는 八日閣議에서 現役兵의 在營年限二年을三年으로延長하기로決定하엿다 右는民族問題를圍繞한 國內不安에 對處하기爲함으로 解釋되는바 이에依하야 체코軍隊는 兵數에잇서 七萬을自動的으로增加하게될것이다

바틀러報告에關한 國際勞動會議開幕

【쥬네브八日發同盟】國際勞動會議는 八日午後伯爾國代表 알데만·포르코氏司會下에 審議를 續行 本會議의 主要議題인 바틀러局長의 世界經濟에關한 年次報告에對하야 一般討議를 開始하엿다 뉴질랜드、墨西哥兩代表의 發言이잇고 十一時半 支那代表李平衡이登壇하야 戰爭과 經濟問題를關聯시켜 前後二十分에 亘하야 反日演說을行하엿다 李平衡은 먼저 바틀러報告中 西班牙와極東에잇서의 戰亂과 勞動問題의 關係에關한 部分을援用하야 平和아말로 世界經濟繁榮의 條件이라고論한後 極東問題에 對하야 左와如히述하엿다 極東에는 滿足國 不滿足國의 理論에基하야 侵略國이 弱少國을 壓迫하고잇는바 英國米國과 그地位를 經濟上으로比較하야 支那에는 現在二百萬의 訓練을바든 兵士와 八百萬의 後方勤務員이잇서 斷乎日本軍의 進攻을 防衛할準備가잇다 諸君도 結束하야 侵略을 阻止하기爲하야 努力하기를바란다 그런데 바틀러報告는 日本의 對外經濟進出의 原因이 日本國內의 人口過剩에 原因하야 日本에게 好意的觀測을내리고잇다

全朝鮮保護觀察所長打合會

總督府法務局에서는 時局의推移에鑑하야 保護觀察所의 十七指定保護團體에 對한 監督指導의 適正을 期하기爲하야 來十[illegible]

全朝鮮刑務所長會議 九日、總督府서開催

全朝鮮十七刑務所長會議는 九日午前八時半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宮本法務局長統裁下에 開催되엿다 出席者는 森大邱刑務所長外 全朝鮮十七刑務所長과 法院側으로부터 小川高等法院長、增永高等法院檢事長外 各覆審法院長、檢事長各地方法院長等出席 刑事井出第一科長、十河關東刑務支所長도 臨席 總督府側으로부터 大原法務課長森浦行刑課長外 各關係官出席 會議로 入한바 出席者三十五名은會議하기前에 午前七時半朝鮮神宮에 參拜하야 皇軍의 武運長久를祈願하엿다 會議는 劈頭南總督의訓示(大野政務總監代讀)가잇슨다음 各所長으로부터 順次로管內狀況을 報告한後 宮本法務局長의 注意事項이 잇슨後 第一日의會議日程을 마첫다

▲諮問事項
一、受刑者에對한 國語普及促進方策如何
二、司法保護事業發展의 合理的方策如何

特히受刑者의 國語普及問題에對하야는 愼重한 諮問答申이잇섯고 午後四時第一日을마첫다 그리고 午後六時부터 一同은 大和町官邸에서 열린 大野政務總監招待晩餐會에 臨하엿다 第二日(十日)은 諮問答申을續行하고 意見陳述을할터인데 第三日(十一日)은 協議를 行하고 十二日은 京城西大門刑務所 演武場에서 行하는全朝鮮治刑協會總會에 參觀하고 出席할豫定이다

八面鋒

◇政友會 總裁問題 依然未解決狀態로 遷延。

◇當面政變을 맛는 鳩山派는公選을 하자고 代行委員의 머리數를 맛는 中島派는 代行委員會에서 決定하자고 야당이어 結論。

◇結局 決定해 노면 兩派로 갈라질것이 分明하니 서로 自重하야 現狀을 維持하자는것

◇興하면 合하고 衰하면 싸우는 法인가、合하면 興하고 싸우면 衰하는것인가。

◇政權을 잡을 希望이 업는 政黨、內紛을 일삼을뿐。

◇中等學校를 擴充하면 一千六百餘學級이 된다고。

◇一學級 六十名을 삼으면 約十萬名、收容員이 相當히 增加。

◇그러나 年年히 增加할 小學卒業生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猶不足。

人事·集會

▲西村直己氏(內閣情報官)支那滿洲視察中昨日北朝鮮經由入京하야總督府警務局情報事務에關하야協議하고一泊後九日午前十時發旅客機로歸東

▲李東善氏(京城長湍郡常小學校長)新任人事次來社

▲萩原鐵道局庶務課長 順天出張中이든바 九日朝歸任

思想判檢事會同

【東京電話同盟】今年度부터 새로 召集된 思想係判檢事會同은 九日午前九時半부터 法相官邸에서 開會 本省側으로부터 鹽野法相 岩村次官 [illegible]刑事局長以下關係官 裁判所側으로부터 池田大審院長、泉二檢事總長以下 各長官會同者側 東京控訴院 小中部長 岡戶檢事 以下 五十二名參列員 大阪地方法院[illegible]部長以下 外地法官四名參加 大審院三宅部長及三橋、横田、岡崎各檢事出席 鹽野法相으로부터 思想戰時下의 思想犯對策에關하여는 特히萬全을 期하라는旨의訓示가잇슨後 諮問事項 一、時局下의 思想犯處遇如何 檢察裁判上特히留意할點如何 에關하야 協議에들어갓다 會議는十一日까지續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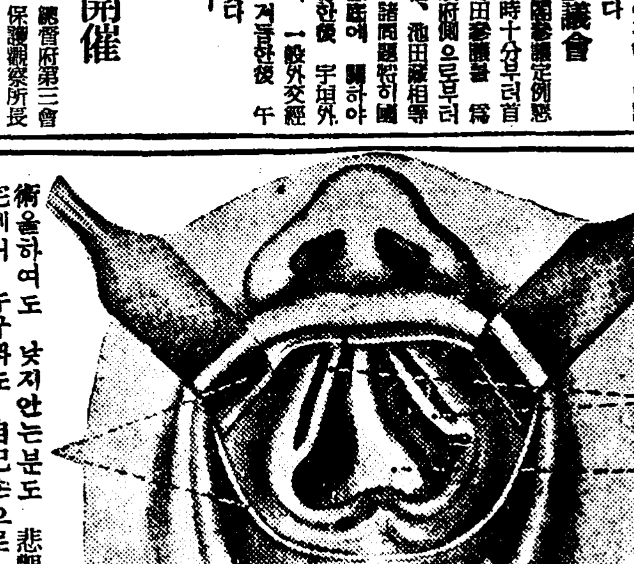
定例內閣參議會

【東京電話同盟】內閣參議定例懇談會는 九日午前九時十分부터首相官邸에열리어 町田參議를 爲始로 各參議出席 政府側으로부터 近衛首相 宇垣外相、池田藏相等出席하야 當面의 諸問題特히國民精神總動員强化徹底에 關하야 各各意見交換을 行한後 宇垣外相으로부터 最近의 一般外交經過를 說明懇談을 거듭한後 午後零時五分散會하엿다

特別臨時發賣
巨星朴響林 花形盤
찻집아가씨
船倉에울너왓다
—40816—
Columbia
콜럼비아레코ー드
製造發賣元 株式會社日本蓄音器商會

척수병 脊髓病
手足麻痺骨節麻痺痛 脊骨突出龜背의如히
身體가뒤틀리고 腰痛、뼈가썩고 이나는等 脊髓에起因한疾患으로 苦하는者에 內服해서治療하는 藥有此廣告切取新聞名記入해서 一部無代進呈함
內容說明과共히 實本家庭療養書를
兵庫縣明石市中町 太平堂製藥社

코병잇는분에게
ドクトル湊謙治先生世界的發明의
自宅療法 無代進呈
코가맥히고 좋한냄새가나며 코속이마르고 붓고 쑤시고 눈두통이나며 呼吸하기에困難을늣기고 記憶力이낡븐은 湊謙治博士가발명하신 최신치료법으로 根治식혀주시거바랍니다 코가낡루면 自然頭腦가낡버지는것은 勿論이어니와 종하게되면生命까지危險하게되니 速히곳처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蓄膿症 肥厚性鼻炎 鼻茸等으로 手術을하여도 낫지안는분도 悲觀하시지말고自宅에서 누구라도 自己손으로 손쉽게 治療할수있는 이最後의療法을 實行하여보십시요 申込하시면 湊謙治博士의『鼻病과그治療法』이라는 순조선말로된親切한自宅療法書를누구에게라도 無代進呈하오니 지금곳 東京市日本橋區呉服町三ノ八湊製藥東京營業所에 葉書로申込하시요。
肥厚性鼻炎의切開手術



ALLYSIN
藥學博士 加來天民先生創劑
肺病 腸內殺菌 新劑
アリチン
A號 肺病豫防 强力治療新藥!
本劑는藥學界의權威인 藥學博士加來天民先生이多年間 苦心硏究한結果創製한것으로 呼吸器病特히治療及豫防藥으로他藥의追從을不許하는特殊한藥이올시다
B號 强力腸內殺菌의 理想劑!
アリチンB號는A號의各效力以外에特히 强大한健胃、腸內殺菌에重點을置하야製劑한것으로 各種傳染性胃腸疾患(赤痢、コレラ、チブス、疫痢)豫防及治療에偉大한卓效가잇습니다
包裝價格
A號 百球入 二、〇〇 三百球入 七、〇〇
B號 百球入 三、〇〇 三百球入 八、〇〇
服用法 一回一球乃至三球 一日三回 (一日藥價僅カ金十八錢)
【文獻請求次第送呈】
製造元 天一製藥株式會社
發賣元 天一藥房洋藥部 京城禮智町

第二次複線化工事 京義線先行論有力

京釜線은大田、三浪津間難所横在로

鐵道局首腦部의意向打診

철도국에서 조선철도공사에급속도로 번영을이르키게될 경부선(京釜線)영등포(永登浦) 대전(大田)사이와삼랑진(三浪津)부산진(釜山鎭)사이와 경의선(京義線)경성 평양(平壤)사이의 복선(複線)공사를 착공진행하고잇는터인데 이것은명후 십오년도까지는 완정하게되겟스므로 그뒤를이어 또그남아지의 선로는제이차로 복선을 할게획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길전(吉田)철도국장은 이다음의복선은 대전삼랑진사이에 시행하겟다고 언명한바가 잇섯스나 현재 철도국공무 파의 의향으로는 경부선 보다도 경의선 평양·안동현(安東縣)사이의 복선 공사를먼저 시행하려고 생각하고잇다 그리유는 남이나 북이나 말로 다름업는바이겟지마는 경부선대전 삼랑진사이에는 청도군(淸道郡)성현(省峴)의[터널]이잇고 그밧게도 공사하기어러운곳이만흐더이므로 자라리 비교적수월한 경의선을 먼저착수하야 빨리 성취하는것이급무라고 주장하고잇다 아직그구체적설계에는 착수하지안햇스나 어쩌면 제이차복선공사는 경의선평양 안동현사이의 공사를먼저실시하게될가능성이 만하보인다

清水工務課長談 철도국청수(淸水)공무파장은 다음과가티이야기한다

경부선편은 난공사(難工事)의장소가 여러군데잇지마는 경의선편은 비교적공사를 진행하기가 수월한곳이므로 자연얼하기쉬운곳부터 먼저 착수하는것이당연한줄로생각한니다

紳士自殺船遊

팔일오후 세시사십분경에 삼십칠팔세가량 되여보이는 조선인신사한명이 한강파아래 유선업자 황종오(黃鍾五)집뽀ー트한척을 한시간으로약속하고 빌어타고서 인도교아래로 노를저어간뒤에 한시간약속하고간 사람이 세시간이넘어도 돌아오지안흐므로수상히여기여사방으로차저보앗던바 한강철교 아래에매여둔 뽀ー트만이 강물우에떠돌아다니고 사람은 곳이업서 아마도 각오의자살을한것이라는듯십다고한다

有夫女、寡婦弄絡한 惡質觀相쟁이押來

甘言으로誘引하야貞操蹂躙、金品多數騙取

被害女性이十數名!

상생이 의술가(醫術家)로자처하면서 우매한 과부와인처등의 정조를유린하고 막대한 금품을편취한 사나이——지난오일본정경찰서 사법게에서는 유(劉)형사가 강릉(江陵)에출장하야 임봉래(林鳳來)(二〇)라는 사나이를체포해와서 엄중취조중이데 이자는 본적을 경북문경군산양면우본리(聞慶郡山陽面愚本里)에두고 지난삼월초순에 이경하야장사정(長沙町)백이십삼번지에 유숙하면서 주인의과부 최기봉(崔基奉)(三〇)의 상을 보아준다하야 감언이설로 유인 마침내 그과부와 부부의 형식으로 동거하는한편 예지정(禮智町)백여십칠번지 인처 황영자(黃英子)(三〇)를 비롯하야 화동정(花洞町)백삼십이번지 최종현(崔鍾鉉)(二五) 한육전(韓育全)(二八) 한양순(韓陽順)(二七)등 전후십여명의 과부와인처를 똑가튼수단으로 꾀여서 수천원의금전을 편취하는동시에 그들의정조를 유린한다음 자기의죄상이 탈로될것을 무서워하야 최기봉을 다리고 강릉에잠복해 잇던것을 체포해왓는데 피해자 가운데는 상당한지위에잇는 인처와 과부들이 섞기여잇섯다

愈出愈怪、假憲兵

搜査網을비웃는듯、카페에나타나서

豪遊一席後에潛跡

기보=자기는 신용만주국 헌병대위이테 이권(利權)을 운동해주마고 헌병대위의 정복에패검까지 그럴듯하게 차려입고각처로 도라다니면서 운동비로다수한금품을 사취해먹은 가헌병(假憲兵) 박승원(朴承元)(三)은 시내 각경찰의 맹렬한 수사를게속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수사망을버서나 수사대로하여금 극도로 초조케하고잇던중 수일전 동대문서에서 범인의신원에 대한중대한 단서를잡게되여 범인의정부인 임영순(林英淳)(假名)을 시내 효제정(孝悌町)모처에서 인치하게되여 이로써 수사진은 아연활기를 띄게되엿다한다

그런데 그후판명된바에의하면 범인 박승원은 사월초순과 중순에걸처 시내명월관(明月館)음벽정(飮碧亭)송향각(松香閣)등에서 가위매일밤가리 호유할뿐아니라 수일전에는 엄중한수사망을 비웃는듯이 대담하게도 종로 낙원회관(樂園會館)에 경복정모로나타나서 수사중의 경관대로하야금 놀라게하고 어듸로인지 잠적해버리엿다

낙원회관에 나타나서는 호화하게술을마시고 여러여급들을상대로 자기의지위를자랑한바람에 세운뒤에바ー멘에서야료를부리엿는데 경찰에전화를 할려면하라나는경판을 전내지안흐다고기염을토하고 유유히 잠적하엿는데 더욱수사진을 이가티에게속은이처럼가지 경찰관들의 위신잇는것을 간판으로 각요리집에서 야료와 폭행을일삼고잇다는것이 들어나고잇스므로 그피해정도는 얼마나만흔지 헤아릴수업다고한다

樂士大量脫走

滿洲서數十名이 契約無視코潛入

서양영화의수입이 금지된이래 각사의양화"스톡"이 줄어들어거니와 이곤경을타개해나가기위한 대책으로근래 유의만극(漫劇)등의"애트랙순"을 성히상연시키고잇서서 어느정도의성적을울리고잇슴에따라"애트락순"을게약하기에 각극장의경쟁이백열화한나머지 여기에 새로운폐단이생기게되엿다。

즉팔일본정서형사실에서는 봉천(奉天)"오리엔탈"예술사사장탁성록(卓星綠)(三)이란사나이를취조하는한편 약초극장(若草劇場)회사관계자와 "콜럼비아·레코ー드"회사관계자를 신문하고 잇는데 사건의내용인즉 시내강기정(岡崎町)서조(西條)모가 수간에서서 약초극장과 "콜럼비아·레코ー드"회사에서 "재스밴드"를구하고잇스므로이"밴드"의게약을 전기탁성록에게의뢰하엿다 그래서 탁성록은 서경, 하르빈, 봉경, 봉천등지의"딴스홀"에서 이류악사수십여명을모집하야 경성에보내엿는데 여기에옹모된 악사들은 대개가 만주와북지의"딴스홀"에서 계약기한이차지안코 대차관게도며칠하지안흐러로써 모든주인불래물슬해왓스므로 각지경찰서에서 수색원을낫고 본정서로전기악사가들의 행방을 수배해온것이다 그들은전부 검속해다가 각각잇던곳으로돌려보내기로되엿다한다

傳票詐欺漢

본적을충남서산군인지면 둔당리(瑞山郡仁旨面屯堂里)이백사십삼번지에두고 주소가일정치안흔 채헌묵(蔡憲默)(二四)이는 지난사월에 상경하여 시내상왕십리(上往十里)이백사십사번지 이경연(李慶淵)의집에 묵으면서 동인이경영하고잇는 중앙토목회사(中央土木會社)인부 전표중매를 도아수고잇던중 지난오월이일에전기주인이 씨가외출한새 책상설합속에서 이백삼십사원구십전이나되는 전표를절취하여서 현금으로바꾸어 그중오십원을횡령소비하고 잔금일백팔십사원 구십전만 주인에게돌려주고 어대론인지 종적을감추엇다가 팔일오후칠시경에 길거리에서전기이씨에게붓들려 서대문서로인도되엿다는데 동서에서 취조한결과이자는 서대문정(西大門町)이정목에

元長水署員의 瀆職事件上告審

和姦으로認定·輕刑言渡

주재소순사가 신원조사를비자하고 관할안에 유하는 일주민의소실을 자택에끌고가서 욕을보인다음 피해자의 고소를받오려고 직권을 남용하야 불법체포감금으로 고소권의 행사를방해한후 독직죄로 일심에서징역이년의 판결을받고 불복상고하엿든 원전북도 장수(長水)경찰서 산서(山西)주재소 순사 송본신명(松本信明)에 대한 복심공판은 구일고등법원에서 삼전(森田)재판장주심 촌전(村田)검사관여하에열려 재판장으로부터 징역시월의 판결을 나렷다 즉이사건은 원심판결에 오인이잇다고 사실심리를한결과 강간이아니고 화간이라는 인정을하게된것인데 직무집행도중에 그러한일을지질러서 역시유죄의판결을 밧게된것이다 그리고 송본은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한결과곳 석방하게되리라고한다

'九天玄女神에祈禱 金倍加術을透得'

淸州高利貸金業者에게萬六千圓詐取한

祈禱詐欺師遂被捉

부내종로삼정목 오십팔번지에거주하는 전과이범 차상인(車相仁)으로 이자는 지난달십일추남대전(大田)사는 박재근(朴在根)이라고 자칭하고 피해자를 차저가 자기는 오래동안경남합천(陝川)해인사(海印寺)에서 불공을하엿는데 구천현녀신(九天玄女神)에게기도만하면 돈이배가되는 금배가술(金倍加術)을터득하고 도라왓스니 돈십원만내면당장에실험하야보여드리겟다고하고십원을노코 빈는척하다가 수인이보지안는틈에 자기가 가지고잇던 돈십원을적 더하야 이십원을만드러보혀 욕심만흔로인을 홀리반하게하고는 현금일만육천원을 준비케하야 이십일일 서울로와여올려 부내죽첨정(竹添町)오십사번지 승영려관(昇永旅館)에 가리 투숙하고 그날밤여서절되여 오십원을 제하고 남어지 일만오천구백오십원을 두개의 부작쓴 봉투에 갈러너허 상우에 올려노코 압헤는 파일 기타제물을 엄숙히가춘다음 두사람은 그압에 업되려 섯십성의기도를하다가 로인은삼청정(三淸町)자기는 남산에가서 기도를드려야 갈럴이된다고 서로나간다음 아홉시경되여 로인이 도라와보니 그자는아직 도라오지안헛스므로 한시간쯤기다려도 도라오지안키에 그제야 의심이나서 부작주머니를 떼여본즉 가득드러잇던 백원짜리대신에 신문지가드러잇는데 깜짝놀라 사실을 소관종로서에 급보한것이다

(사진은 현상해먹은 부작과체포된 차상인부자)

기보ー부내종로서관내에서 욕심만코 무지한 청주(淸州)사는 로부호가 십원을노코 빌면 이십원、천원이면 이천원이된다는 대금을 사취당한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밧고 종로서에서 극비밀리에 맹렬한 활동을하고잇다는것은 당시 보지에 이미 보도한바와갓거니와 엿샛날 드디여 유력한 용의자를 종로서에서 엄중한 취조를한결과 사건의 전모가 판명되엿다

무지한 피해자는 충북청주읍본정(淸州邑本町)자정모사십일번지 고리대금업자 최이원(崔貫源)ー當時 黃永熙라는 假名으로 報道)(六)、대금을 사취한 기도사기사(新聞記事)는 전남장성군장성면 령천리(長城郡長城面鈴泉里)삼백구십번지에 원적을 두고

全州에서도 五千餘圓詐取

全州署서도手配한人物로 애비도共犯嫌疑로逮捕押來

엉터리업고 대담한범인차상인은 작년칠월삼십일 전북전주부풍남리(全州府豊南里)삼십사번지 구두상오흥환(吳興煥)에게서벌향과꼭가튼수단으로 현금오천이백오십원을사취하고 종적을감추어 전주서에서 지명수배중의 인물로서사취한돈은일부분은 충북영동군영동면계산리(永同郡永同面稽山里)사는 그의아버지전과오범차시승(車始昇)(六二)에게보내고 현금만여원은 이와가티 사취한돈으로 작만한전기잡목한잡들애무든것을 발견회수하엿는데 종로서에서는 그의아버지까지 공범의혐의로잡어다가 이악양부자의 여죄를 엄중취조중이며 결과로는 피해자와 금액이 더만허질것으로보인다

未決在監十一年!

裁判長이六代나갈리도록

解決못짓는怪事件또公判에

벙어리(?)로

【慶南支社】 살인강도범(殺人强盜犯)이경찰에 체포되어취조중에 벙어리(啞)가된후공판에회부하얏스나말못하는 벙어리라 사실심리를 진행할수업서십일년간이란 긴세월을두고 내려오는주소부정 김덕용(金德龍)(三九)에관한 살인강도 피고사건은 조선재판사상에 드문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의 두통꺼리로 또 일반 사회에서도 그결과를주목하고잇는 동사건에 대하야부산지방법원에서는 근간 다시공판을 열고저 방금 준비중이라는데 이제그내용의대강을 소개하면 지금으로부터 십일년전인 소화이년사월이십칠일 경남창원군귀산면현동리 마웅치(昌原郡龜山面縣洞里馬熊峙)에서 남해군이동면 룡래리(南海郡二東面龍淵里) 농업 제지길(諸智吉)(五九)을몽둥이로 뚜시따려 살해한후현금 삼십삼원과 소(牛)한마리와 두루마기한벌을 강탈한사건의 범인으로 마산경찰서에 체포되여취조를당하고잇섯는데 오월삼일아침에 돌연말을하지못하는 벙어리가되엿다고한다 그후부산지방법원공판에 회부되여 당시재판장인 교본(橋本)판사주석、천전(千田)검사립회로 공판을열엇스나 역시 말을하지안흠으로 공판을중지하고 전문가의감정을시킨결과 심신모약(心神耗弱)망각성치매증(忘覺性痴呆症)환자이나 심신상실자가 아닌것이판명되엿스므로 공판은진행할도리가업스

志願兵入所는 來十五日에

新築地는楊州孔德里

오래동안 물색중이던 조선총독부 육군지원병훈련소(陸軍志願兵訓練所)의 위치와훈련개시기일은 다음과가티 결정되엿다 그리고 적기장소의 훈련소가 신축될때까지는 경성제대예과의부속건물을 사용케된다

一、位置=京畿道楊州郡 蘆海面孔德里 但當分間 京城帝國大學內에設置

二、訓練開始期日=昭和十三年六月十五日

申榮晟氏檢束

수일전부내종로서 고등게에서는 동경시본소구삼하도정(本所區三河島町)오정목 일천칠번지 조선유치원(朝鮮幼稚園)장 신영성(申榮晟)씨를인치조중인데 씨는전기주소에서 경영하는유치원 경비를엇고저 얼마전에 경성에와서 명사의소개장을가지고 시내유력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중 모종혐의를 바더잇는데취조결과 그혐의만은풀어섯스나 아직도 사기혐의가잇다고하야 동서사법게에서 취조를 하는중이다

驚馬가傷人

通行人四名이橫厄

본래이제바람에 놀란다는것으로 짐북만히실어서 차체가부려진소리에 놀래말이 종일골북을릭면서 함부로 사람을다처노앗다 팔일오후두시반경되여서 시내통의정(通義町)사십사번지바을과하실고 수송정(壽松町)각황사(覺皇寺)아페 이르럿슬 지음 질럿던 마차의 차체가 부러지자 그소리에 놀래인말이 함부로 좁은 수송정거리에서 안동네거리 견지정(堅志町)등으로 다라나는데 부딧처서 상왕십리(上往十里) 이백십오번지 민정식(閔政植)이란 노파를위시하야 중동학교예과생 정권정(鄭權正)수송정(壽松町)십칠번지 박게원(朴桂源)중윤양조장(松潤釀造場)인부 최덕영(崔德泳)등이 중상을입엇스며 신창정(新昌町)사십구번지연주현이가 자전거에실고가던 재봉침기계한대를 자전거와함께부서버리엿다

海軍炭坑爆發 卅七名生埋

【福岡電話同盟】 팔일오전조쿠군지면조해군연탄갱(福岡縣糟屋郡志免村海軍煉炭礦)발표=지면조해군연료소채탄부(志免村海軍燃料廠採炭部) 제칠항내지하(地下)에서 칠일오전 십시경에 돌연히와사(瓦斯)가 폭발되어대참변을 이루엇는데 동소에서는 직시소원을 총동원시켜 구호반을조직하고 결사적구조작업을하고잇는데 폭발현장이나 항내에는 벽이작구무너지므로 위험하기짝이업서 구조사업하기도 극히 곤난하다고한다 폭발당시에 입항중이든 항부는오십칠명이엇섯는데 그중다섯명은 일시취의로 빠져나오고 오후아홉시까지에 겨우십오명을 구해내엿는데 그중여덜명은 사망하엿고 남은사십칠명은 구출해낼가망이없는 심여시간이나 경과한모양이므로 그들의생명은 절망시되고잇다하며 원인에대해서는 아직 조사중이므로 알수업다고한다

여름철이라 흰옷이제철을 마지하여 거리에는 나날이흰옷입은사람이만히 눈다 ▲널리 조사까지는안해보앗지만은 흰옷입는것은아마 조선사람의 특색(?)한 (色鑑)이 아닌가 십흘만큼 다른곳에서보기드믄고래의 (色鑑)이다 ▲그런데 그흰옷입는 역사를 상고하면글로기록된 최조의것은 부여(扶餘)의 사람들은『흰옷을 숭상하고 가죽신을 신는다』고기록된것으로부터 미루어 짐작할수잇다 ▲부여족에서 갈려나온것이고구려(高句麗)인은 말할것도업고 그당시의 만주일대와 그이남의 각부족(部族)의 언어풍속이대동소이 하엿다는 기록으로 보아 모두가 가튼 족속으로볼것이다 ▲그러타면 흰옷의역사는 적어도 이천년이전의 옛풍습이라고 볼수잇는데 생각하면 긴역사의 흰옷이다 ▲물론은조선백성의진대 정결한흰옷입는풍속도 잇슬수잇는 근거는된다

全日本陸上選手權

日本陸上競技聯盟에서는 지난四日에 技術員會를열고 다음과가튼 事項을決定하고 七日에發表하엿다

▲全日本選手權大會는 九月廿四、五日에 甲子園南運動場에서 開催하고 各地豫選은 느저도 大會二週前에行할것 ▲全日本大會를 日獨伊 交歡競技會를爲한最終選考會로한다

京城無線工科 校舍移轉코擴張

電氣、土木科增設

경성부무선공파학원은 소화십일년창립되여 어래수년간사계의우수한 기술자를 다수양성하야오든바 최근동학원의 원장송룡근(宋龍根)씨와 이사장서상호(徐相鎬)씨등을 중심으로 일대확장계획이 추진되여 교사도 혜화정(惠化町)의 구교사로부터 부내 경운정(慶雲町)팔십이번지(구천도교기념관)으로이전하는동시 현하시세에적응한 전기공파를 주학으로 토목과 건축과는 야학으로 각기증설키로 목하그준비에 분망중이라고한다 이상 시설되는 제과의게획은 느저도 오는칠월신학기까지에 완성되리라하며 얼마지원의정수는 실업계와의관통이 고조되는만큼 이중등정도의 이미한편에 새로운기대를 어디마지안는다

橫領殖産局員 二年役求刑

총독부 식산국상공과 용산분실서무게원으로 잇스면서 여급에게반하야 현금·공채등이만침천원을 횡령하엿다는 부내원정(元町)일정목 일백이십구번지 삼산우조(森山友助)에관한 업무상횡령피고사건의 공판은 구일경성지방법원에서 복포(福浦)재판장주심 전평(田平)검사관여하에열려 검사로부터 징역이년의 구형이잇섯다 사건내용은 피고삼산이 소화구년이월부터 동십이년팔월까지 전기용사무실에 봉직하고 잇는동안 한강통(漢江通)지석번지 카페ー백마(白馬)의여급 대판자(大阪字)에게반하야 도원하기금을달하기와 탐관매대금들을통횡령에서 유흥비로 헛되히쓰한것이라고한다

第二放送 ▲午後六時三〇分라디오學校 沈亨兩 ▲六時五五分어린이新聞 ▲七時 經濟解說 李

第一放送 ▲午後六時 管絃樂(京城) ▲六時二五分(東)蓄音器ー스 ▲七時三〇分(城)라디오常識 ▲七時四〇分(東)青年時間 ▲八時(大)俗曲 ▲八時三〇分(東)時評 ▲八時五五分(東)浪花節 ▲九時 大衆演藝 ▲一〇時一〇分 經濟市況 (四)株式

第八回 中等校俱樂部 籠球聯盟戰

時日 十一日로十八日까지 (每日午後四時半)

場所 安國町徽文小學校庭코ー트

◇參加申請=十日午後五時까지

主催 朝鮮籠球協會 後援 朝鮮日報社

스포ー츠

中等庭球리ー그 十八、九兩日開催

京城中等學校庭球聯盟主催의 第十九回 京城中等學校春季庭球리ー그戰은 來十八、十九兩日間元町鐵道局코ー트에서 擧行할터인데 出戰校는 京中、龍中、培材中學、京商、善隣商業、京城中學、普成高普等의七個校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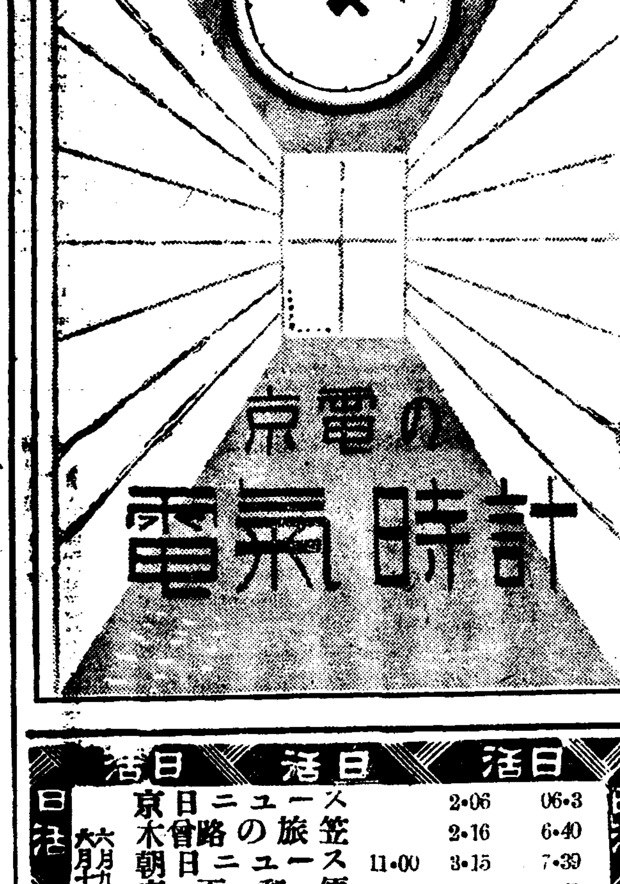
早慶蹴球關東代表

第四回全日本蹴球選手權大會關東豫選會最終日은 五日午時三時부터 東京帝大球場에서 行한바 A組에는 旣報한바와가티 慶應大學이 文理大를이엿고 B組決勝에는 早大가 BRB를이여서 慶應과 早大兩軍이 關東代表로 決定되여 朝鮮代表全延禧과 交戰케되엿다

▲A組決勝 慶應 6 …… 1 文理大

▲B組決勝 早大 4 …… 0 BRB

太田胃散 神如効藥 四時常備의胃病靈藥 東京太田信義藥房 各地藥店에서發賣



時의記念日 大特賣 一年一次社會奉仕 京城鍾路二丁目 普信堂時計舖 電光一八一二三 振替京城二八五一

祝時의記念日

三中井 時計部 六階

時計貴金屬은 丁子屋 四階

時計와貴金屬은 반드시 三越 四階로

標準時計 株式會社 村木時計店

京城時計貴金屬商工組合

黃金座 六月九日ヨリ 六月十四日マデ 京日ニュース 2·06 06·3 木曾路の旅笠 2·16 6·40 朝日ニュース 11·00 3·15 7·39 春雨郵便 11·10 3·25 7·49 社ニュース 12·18 4·22 8·57 膝にバンヂヨウ 12·28 4·30 9·07

桃花劇場 東洋劇場 劇團青春座公演 女人哀史

明治座 6月6日ヨリ12日マデ上映時間表 ニュース 11·15…11·41 3·04…3·30 7·00…7·26 人の氣も知らないで 11·43…12·41 3·33…4·31 7·29…8·27 極彩色短篇映畫 12·44…1·12 4·34…5·02 8·30…8·58 ワーナー大學祭り 1·15…2·49 5·05…6·39 9·01…10·36 料金 50錢均一

優美館 新富座

在大阪商工業家紹介版

大阪紹介版第二號發行에際하야

大阪은 面積千八百十二萬平方米에 人口四百五十萬을包擁한 大大阪이다 그規模의廣大함에잇서 世界的大都市일뿐만아니라 商工業에잇서서도 또한世界에有數한都市인것은 一般의周知하는바이어니와 長期抗戰下에 皇國이 戰時經濟體制下에 無敵의彈力이 잇슴도 이러한重要役割을가진大阪이 잇는緣因이라고할수잇다

이러한大阪에 朝鮮人居住者가 渡航證明의 移住制限이有함에도不拘하고 內地各處에서轉住者도 적지아니하며 自然生長도 잇게지만 나날이增加되야 現在約二十四萬에達한다고한다 이를昭和十一年末統計二十二萬五千에 比하면 一年동안에 一萬五千의 增加率이다

이二十四萬의大多數가 貧勞働者의所生으로 世苦에싸라먼을 來阪하게하고 唯一한勞働力을資本으로 종파리하려 건너온것이 動機이엿다 그러나 時代가變遷함에따라 大阪에잇는 朝鮮人은 萬難을除外하고 躍進에躍進을거듭하야 今日에는 經濟生活에關한限 어느地方보다도뒤떠러지지 안홀만한自信과實力을가지고잇는이거니와 現在大阪에는 赤手空拳으로商工業界의 重要地位를 獲得한분이 한두분이아니며 府下布施市만하여도 電力三馬力以上使用工業家만 百八十餘라하며 大阪全體를通하야 朝鮮人商工業家가 數千餘戶에 年生產額이數千萬圓을不下한다하니 產業都市大阪의 市民으로서 조금도 遜色이 업게되엿다

昨年度 本紙에 大阪紹介版을 發刊한動機는 첫재에 이와가티 躍進途程에잇는在住各層朝鮮人을 널리紹介하므로써 在來의 一般이 가젓든 誤解를訂正시키며 둘재는 아즉도 幼稚한商工業界의 今後發展을期하야 在住朝鮮人商工業者와 內地各處는勿論 朝鮮內商工業者間에 物資搬運의길을 促進함에잇고 셋재로는 先進諸賢이 발바나온 足跡을 알림으로써 後進의 압길에 한갓參考가 되지아니할가한데잇섯다 幸히 昨年度紹介版發刊을發表하자 各方面人士로부터支持와聲援을 바더第一號를無事히 發刊하엿거니와 當時紙面關係로 在住人士를 多數紹介치못한바잇서 第二號를繼續發行할計畫을세우고잇섯스나 時局關係로 一時中止하엿던바 때마침 本紙紙齡六千號와革新五週年을 합께마지하게되여 本社에서는 [illegible] 會등의 各種團體와 아울러 在來의 [illegible]을 實行하도 有意義한 外라 도一便生覺하면 이러한非常時下에잇서서 銃後國民으로서의 힘찬活動을하고잇는 在住朝鮮人狀況을 內外에 紹介함이 決코 無意味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今般大阪紹介版第二號發刊을 發表함에 各方面諸賢께서는 昨年度와 다름업시 支持와後援을 주서서 第二號를 發刊하게되엿다 이것은 오로지 諸賢의 本報를 愛護하야주시는 賜物이라고 미더 深謝하는바이다 未安한點은 一年이지난 今日새로운 個別的動向에關한 統計等을 실지못하엿슴과 여러가지 未盡한點은 第三第四號로써 補充報告하려하오니 寬容하시와 今後도倍前의鞭撻과支持를바라는바이다

(朝鮮日報大阪總販賣所白)

刀圭界의權威者
江南醫院長 崔亨澤氏

氏는 慶北慶州出生으로 鄕里에서 小學을마치고 幼年時부터 山口縣에건너와 中學을마치後 山口高等學校에 다니다 醫學에뜻을두고 九州醫學에 學籍을옴겨 同校를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한後 九州醫大硏究室에서 硏究하다가 大塚縣立病院 長崎公立病院 預川伊藤病院等에서 多年奉職하야 臨床治療와 硏究를거듭하고後 昨春 天六에서 牛島醫院을 開院하엿다가 醫院이狹窄하야 現在 東成區 猪飼野一條通 前大阪共榮舘病院跡으로 移轉하는同時 院名을 江南醫院으로 變更하고 入院室等 設備를擴充하야 入院患者를 取扱하며 또한 健康保險患者도 取扱하므로 外來患者도 날로 增加한다는바 氏는 性格이 快活 膽大하고 對人接客에 親切叮嚀하며 趣味로는 書道와 醫業으로 自慰한다는바 氏는 現在三十二歲의 壯年醫師로서 恒常社會事業에 매우 有意하다하니 今后로 氏의 活躍을 一般은 企待한다고한다 (寫眞은 崔亨澤氏)

朝鮮食料品都賣
大阪商店代表者 金昌植氏

實業家로서 今後企業界를 左右하리라는囑望을 一身에集中시키고 悠悠前進하는 氏의存在는 商業界에 唯一한存在이다 氏는 慶北義城郡金城面出生으로 朝鮮서學業을 專攻하고 深奧한抱負와 高遠한 理想을가지고 昭和二年頃 玄海灘을건너서 經濟都市大阪의 가장中樞地帶인 北區街에서 機械商에 從事하다가 今春부터 大阪市東成區猪飼野 朝鮮市場內에 資本金五萬餘圓의巨資로 朝鮮食料品都賣商을開設하고 元山을爲始하야 朝鮮各地는勿論 北海道에 出張所를設置하고 特産優良品을仕入하야 食庫와商店에 泰山가티 積置하고잇다 여것은 氏가 多年間모은精力과誠意를集中하야 세워오는計畫이 實踐期에 들엇스니 鍛錬된 商略과商術로써 仕入、販賣兩方에 氏의獨特한手腕을發揮하야 斯業에 大成할을確認할뿐만아니라 今後氏의 實業家로서의 期待가 크다고한다 (寫眞은 金昌植氏)

勇進不退의猛將
松山金屬製作所主 李浩烈氏

氏는 全南務安郡智島面出生으로 그리豐足지못한 朝鮮農村에 태여나서 晋校를마치자 남다른 希望을가지고 悲壯한決心으로 故鄕을등지고 十年前大阪에 건너온분이다 元來勇進不退하며 立志堅固한故로 一個職工으로 엇드氏는 現在大阪市東成區深江町中五丁目에서 金屬工場을 經營하야 職工數十名을 使用하고 年額數萬圓을 生產하고잇다 氏의 今日의地位를 獲得케된것은 오로지 赤手空拳으로 孤軍奮鬪한 血汗의 結晶이라고한다 (寫眞은 李浩烈氏)

布施市의德望家
山田眼鏡輸出商主 李漢明氏

布施市의 實業家로서 또는社會事業家로서의 重鎭人物은 李漢明氏이다 이李氏는 布施全市民의 두터운信望과期待를 一身에集中하고잇다 氏는全南海南郡玉泉面出生으로 東洋道德을 涵養한後大正十三年頃 來阪하야 工場의 一個職工으로서 從事하다가 昭和五年頃에 現在經營中인 세루로이드眼鏡輸出業을 獨立經營하엿다 多年間苦痛에苦痛을거듭하야 實際로體驗한 技術과手腕을 現業에 發揮하지다 經營한지 不過二年間에 斯界에 屈指의地位에 올랏스니 氏는 事業이進展할수록沈着과愼重을要하야 到底隔世에 專心한結果 至今에는 天賦의地與가有하여도 氏의經濟的基礎는 微動도아니할만한 礎石을세워노앗다 이와가티氏는 實業方面에有能할뿐만아니라 社會事業方面에도 남달은關心을가지고서 二萬餘圓을 喜捨하야 感化園을 設立케한것을비롯 內地에와잇는 朝鮮人으로서는 社會事業에 이와가튼 巨財를喜捨한이는 氏가 最初일것이다 現在氏는 昭明會理事 敎化委員 民生委員 同業組合查定委員等의 名譽職을가지고잇는것을보아도氏에對한一般의 信望이 엇더타는것을 짐작할수잇다 金城鐵壁가튼 地盤에서 여서氏가 今後如何한 抱負로서 如何한 巨彈을 發射할는지 자못注目되고잇다

製棉業界一人者
金章炫氏

氏는 全南靈巖郡西湖面長川里出生으로 疲弊한 朝鮮農村을등지고 生存競爭工都市大阪에 渡航한 氏는 製棉業을經營하야 [illegible]努力한結果 只今은 職工을十餘名使用하고 製棉業界에서 第一人者가되엿다 氏는當年二十五歲의[illegible]으로 町內에信望이 專富하다는바現住所는大阪府下中河內郡八尾驛前이다 (寫眞은金章炫氏)

"잠을쇠"工場經營
齋藤金屬製作所主 蔡甲龍氏

圓熟한手腕을가지고 事業에勤實한 靑年工業家에 蔡甲龍氏가 잇다 氏는 現在大阪市東成區鶴橋北之町二丁目에서『잠을쇠』工場을經營하고잇는데 分工場이세군데나잇스며 年產額數十萬圓의 生產品을 南洋、印、支那等地로 直接輸出하고잇스니 氏가經營하는工業의規模가 얼마나큰것을짐작할수잇다 氏가二十歲未滿의弱冠으로 玄海灘을건너와서 오늘에 成功을보기까지에는 波瀾만흔成敗와 逆境에 浮沈하엿스나 氏의堅固한初志로 勇往邁進한結果 이에挫折되지안코 드디여今日의地位를獲得하게된것이다 氏는 特히斯界에는 남다른特才가잇서 工場經營의妙策에는他人의追及을不許하리라고한다 (寫眞은 蔡甲龍氏)

意氣潑剌한靑年
羅山세루로이드主 羅斗七氏

氏는 濟州島舊左面出生으로 現在布施足代北二丁目세루로이드 生地製造業家이다 十六歲時께 大阪에건너온 當年二十八歲의 意氣潑剌한 靑年工業家로서 보기드문 人格과敎養을 具備한이다 氏가經營하는 生產品은 自轉車손잡이 萬年筆、玩具 라센眼鏡等에 使用되는物品인바 殆半이 關西地方에서 消費된다고하는데 氏는技術이 巧妙하야남이 따르지못할優良品을 生產하므로 斯界에 名聲이자자하야압날의 大成을約束하고잇다 (寫眞은 羅斗七氏)

製紙原料界巨商
金年豊氏

氏는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大字植松에 居住하는바 昭和四年에 出生地인 全南務安郡海際面鶴松里를 등지고 商業界의中心地인大阪으로건너와 여러가지事業에從事하다가 昭和十年에 製紙原料業을經營하여 一心努力으로 活動한結果 只今에와서는 製紙原料界에 巨商이되여 勤勉家로서 大衆의模範이될 人物이라고한다 (寫眞은 金年豊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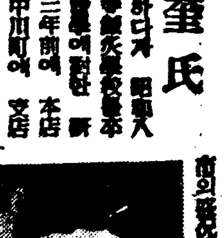
製綿業界의重鎭
立志傳中의人 金淑斗氏

氏는 慶南咸安郡伽倻面舌谷里出生으로 府下 中河內郡龍華町에 居住하는바 昭和三年에 大阪에 건너와 七年동안이나 職工生活로 지나면서 勤儉貯蓄한 僅少한資金으로 製棉業을 經營하야 不斷의努力으로 只今에는 十餘名의 職工을 使用하며 金氏工場製品이라면 業界에서 歡迎하야 使用하게 되엿다 金氏는 勤勞家로서 大衆의模範이될 立志傳中의 한사람이라고한다 (寫眞은 金淑斗氏)

렌스界의技術家
眼鏡렌스製造業 鄭安根氏

氏는 慶南南海郡南海邑出生으로 昭和五年度에 大阪으로건너와 三年間職工生活로 지내면서 貯蓄한 僅少資本으로 府下八尾驛前에서 렌스工業을 經營하야 不斷의努力으로 只今에는 十餘名의職工을 使用하며 鄭氏工場의 製品이라면 業界에서 歡迎하야 使用하게되엿다 鄭氏는 勤勞家로서의 한사람이라고한다 (寫眞은 鄭安根氏)

漢醫藥界의明星
保命商會主 曺守奎氏



氏는 慶南金海郡出生으로 性格이 溫厚篤實하며 幼時부터 家傳業인 漢醫學을 修硏하야 朝鮮에서 朝鮮總督府醫生免許를맛타가지고 約二十年間漢藥業에 從事하다가 昭和八年度來阪하야 數年間漢醫藥學에 對한 硏究를 거듭하고 三年前에 本店을 大阪市東成區中川町에 支店을 大正區小林町에두고 保命商會를 開設하고 門前成市의盛況을보고잇는데 氏는一般에 獨特한 技術로 [illegible] 眞甘味의 優良醫油를 製造해서 奉仕的廉價로 直接相談에 供給하고잇다 (寫眞은 曺守奎氏)

闘志滿滿한經綸家
布施市 申奉燮氏

氏는 布施市在住朝鮮人의 唯一한相談役이요 또한儼然한 存在이다 全南靈岩出生으로 일즉이 東京서 學業을專攻하고 現在 布施市高井田에서 [illegible]와 自轉車를 製造販賣하고잇다 氏는 快活膽大하고 篤厚誠實한 性格을가지고 實業方面은 勿論이요 社會方面으로도 積極的努力을하는데 더욱 朝鮮人의 生活向上을爲하야는 寢食을이저버리고 奉仕的活動을하고잇다 昨年布施市會議員選擧時에 出馬하야 不幸히 落選은하엿스나 朝鮮人立候補者中에서는 氏가 第一最高點이엿스며 現在 國勢調查委員 古物商組合長 內閣產業統計調查委員等 名譽職에 就任하야 남다른 手腕과經綸을 發揮하고잇서서 一般의信任과 期待가 日增月增으로 集中되여가고잇다 이와가티 氏에對한 聲望이 集中함을보면 그手腕과 功績은 [illegible] 疑心치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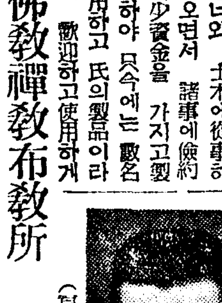
眼鏡輸出界明星
吉岡眼鏡製作所主 金厚敎氏

자자는 趣味와가튼 沈重한態度로 自己業務에 專心하는 金厚敎氏가잇다 氏는남다운人格을가진 篤志한人物이다 慶北善山郡桃開面出生으로 五六年前京城에서 商業學校를마치고 鄕里에서 五六年育英事業에 專力하다가 十年前神戶로와서는 今後工業界의 有望을豫想한氏는 神戶서 文化고무工業所라는 工場經營을하고 一便社會的으로 多角的活動을하신분이다 五年前 眼鏡製造業을專業하야 現在布施市北蛇草一二八六에서 職工五十餘名을使用하고 年產額十萬圓가까이 生產하고잇는데 產品의大半이 米國 印度等地의 輸出品이므로 神戶에서는 同地商館과 直接輸出을하고잇다 多角的方面에 發揮하는 氏의모든 精力을今後氏의事業에集中식킨다니 氏의압날에光明이잇슬것이다

고무工業界一人者
二和고무工業所主 高行珍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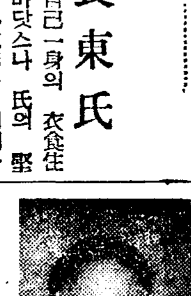
氏는 濟州島新村出生으로 그곳普通學校를 마친후 勞働次로 十三年前에 大阪으로와서 工場에 一職工으로잇다가 五年前에 고무工場을 獨立經營하게되엿다 現在는 工場을 布施市永和町에 支店을 大阪市東成區大今里七六八에두고 職工을 數十名式使用하고잇는데 生產品은 노－빵크라이야 各種二輪車다이야乳母車다이야等 特殊品이므로 全般的으로 고무工業界가 不景氣中에도 氏의工場만은夜間從業을繼續하는現象이다 氏는明朗한性格에能爛한 技術을 兼備하여 將來가 囑望되고잇다

製繩業의信望家
宋占成氏



氏는 慶南陝川郡大倂面卯峰里出生으로 現在大阪府下 中河內郡龍華町에 居住하는바 八年前에 大阪에건너와 土木에從事하야 生活해나오면서 諸事에儉約으로 貯蓄한少資金을 가지고製繩業을 經營하야 只今에는 數名의職工을 使用하고 氏의製品이라면 業界에서 歡迎하고使用하게 되엿다 氏는赤手成家한 勤勞家로서 模範될人物이라고한다 (寫眞은 宋占成氏)

朝鮮佛敎禪敎布敎所
布敎師 邊知豊氏



氏는 全南長城郡北上面出生인바 累代前부터 佛敎篤信家에 태여나서 氏亦是弱冠에 佛敎에 뜻을두고 일즉이 京城靑年學館을마치고 長城에잇는 本山白羊寺講院에入山 十年間佛經을硏究하고 濟州法華寺布敎師로잇다가 昭和六年度에 大阪으로 건너온 氏는異鄕에서 헤매거리는 朝鮮人의 흠빠진衰心을 佛敎를通하야 解決하랴는 熱情的宗敎家로 三年前 中河內郡巽村大字西足代에 基地百餘坪을 잡고 佛殿을 建立하고 現在信徒二百餘名을抱擁하고잇다한다 (寫眞은 邊知豊氏)

堅忍不拔努力家
三木金屬製作所主 張長東氏

氏는 全南康津郡岾川面出生으로 貧寒한農家에 태여나서 남과가티 敎育도 못바닷스나 남달리 强健한意志와 希望을가진 氏는 距今十二年前에 勇躍離鄕하야 大阪에와서 때로는 失業 病魔等으로 自己一身의 衣食住조차 威脅을바닷스나 氏의 堅忍不拔鋼鐵가튼意志는 이러한難關을 排除하고 前進해온結果 至今은 布施市足代一丁目에서 金屬工場을 經營하야 年額數萬圓을生產하고잇다 氏는 自己職業을爲하야는 生命까지도 밧칠라는職業에忠實한이라 氏의所營事業이 今後發展할것을 疑心치안는다 (寫眞은 張長東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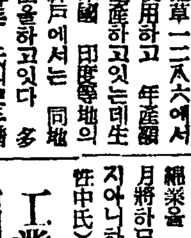
工業家로有名한
金城고무工業所 金正成 姜萬善兩氏

實行키어려운 共同經營으로서 發展에發展을 거듭하야 남들의 羨望의的이 되여잇는 靑年工業家에 金正成氏 姜萬善氏가잇다 兩氏는 濟州島新村出生으로 當年二十七歲의 同年同甲이다 相互扶助라는 참된精神을가지고 分히 고무工場을 僅少한資金을 合資하야 始作한것이 短時日에 斯界에 뚜렷한存在가 될뿐만아니라 日就月將格으로 發展을하고잇다 이와가티 共同經營이 發展한것은 오로지 兩氏共히 圓滿한性格과 充分한理解力을所有함에잇다 現在 大阪市東成區猪飼野東四丁目에서 工場을擴張하고 年產數萬圓을 生産하고잇스며 生產品은 노－방크三輪車타이야를中心으로 各種다이야를製作하는데 特히製品이 優良하야 斯界에 名聲이자자하다고한다

宗敎從事卅餘年
天理敎布敎師 鄭仲禮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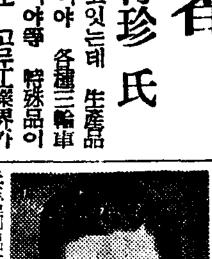
大阪서 朝鮮人宗敎家로서 斯界가 第一으로손가락을 꼽을때에 먼저 鄭仲禮氏를 指摘하게된다 氏는 平壤府東町出生으로 大阪中學을거처 東京慶應義塾에서 學業을專攻하든 有望한人格의所有者요 意志가 剛直하야 事物에 大力으로推進性이잇다한다 氏는 일즉이 天理敎를通하야 이世上苦海의 眞實한眞理를 得感하고서 天理敎에 一身을投身하야 過去二十餘年 斯道에 忠實한使徒라고한다 氏는 自己를犧牲하고 남을救함에는 宗敎家이다 信望이 노파서 一般에게 만흔信任을밧고잇다 現在東亞聯盟總裁라하며 今後氏의 多角的活動을 一般은期待하고잇다 (寫眞은 鄭仲禮氏)

製綿業界巨星
安性中氏



中河內郡龍華町에서 製綿業을 經營하는氏는 慶南咸安郡伽倻面舌谷里出生으로 昭和元年에 大阪에 건너와 製綿所職工으로지내다가 十年동안蓄積한것을 資本으로 前岡村製綿所를 經營하는바 業績이日進月將하므로 아프로大成의날이머지아니하리라고본다 (寫眞은 安性中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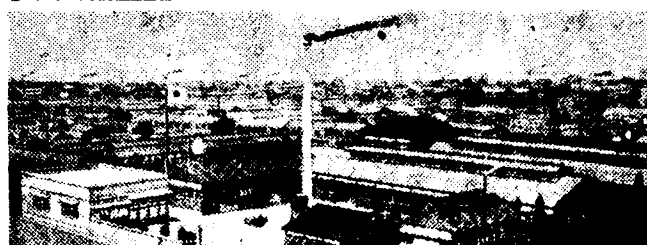
工業界의巨彈
村田製作所主 金南出氏



낫도工業界에 村田製作所라면 너머나 有名하다 氏는 全南康津郡兵營面出生으로 大正七年度頃少年으로 大阪에건너와서 距今十六年間을 낫도工場에서生長하니만큼 낫도에對한技術에는 넓은大阪이나마 氏를追從할者업다고한다 昭和八年度에 工場을獨立經營하기始作하야 現在는布施市大蓮一五八六ノ一에서 工場을擴張하야 生產能率을 올리고잇는데 氏는 技術도能爛하거니와 信用이 두터우며 他工場서 못하는特殊品을 製作하므로 專屬注文만하여도 處理하기 難한現狀이라고하니 爛熟한 手腕과技術을 具備한氏는 將來어떤巨彈을 던질는지 자못注目된다 (寫眞은金南出氏)

고무工業界巨物
安全고무工業所主 安康生氏

大阪에서 고무工業界의 貫祿을 들자면 먼저 氏를指摘해야될것이다 濟州島法還里出生으로 赤貧한家庭에태여나 幼時로부터 世苦에 쓰라림을바든氏는 이世苦를免하기爲하고 十六歲때 大阪에와서 고무職工生活을 四五年從事한데서 習得한技術을 밋천삼아 五分利子二十圓을 빗어더 家庭工業을 始作한것이 十一年만인今日에는 府下中河內郡巽村西足代에서 職工六十餘名에 年產數十萬圓을 生產하고잇다 氏가 今日의地位를 獲得한그동안에는 남들이 想像조차못할 起伏이만허서 自己事業을爲하야 悲嘆의눈물을뿌린적이 一二次가아니라하니 氏의 今日의地位는 참말로 血汗으로 뭉처노흔 金子塔이라고 말할수잇다 (寫眞은 安氏와工場全景)



朝鮮食料品巨商
二和商會 李韓道 李鎬九 兩氏

大阪에서 朝鮮食料品商界에 一驚異의 만큼 手腕이能한이를 든다면 二和商會의 韓道氏와 李鎬九氏일것이다 兩氏는濟州島出生으로 幼時부터 水產業界에 關係이잇섯든關係上 現在大阪市東成區猪飼野朝鮮市場에서 共同經營으로 二和商會를 設置하고 原產地인 淸津、元山、馬山、北海道等地에서直輸入하야 京阪神을 舞臺로 相當한巨額의 商取引을 하고잇다 商略과手腕을 兼備한 兩氏가 二心同體가되야 斯界에 雄飛할것은 不遠한將來에 大成을期待하리라고본다

健實한工業家
富田金屬製作所主 鄭宗文氏

氏는 全南順天郡出生으로 일즉이 普校를마치고 胸中에서波濤치는 商業熱에 어깨려 十五歲時 東京으로와서잇스나 學資關係로 學業의 結實을보지못한氏는人間生活의 先決問題는 經濟條件에 잇다는것을 느끼고 大阪으로와서 工業에 留意한結果 現在布施市荒川二丁目에서 金屬工場을經營하고 年產額數萬圓을生產하고잇다 氏는 內剛外柔한性格을가지고 事業에 犧牲的으로努力하고잇스니 氏의 압날에 大成이잇슴을 囑望한다 (寫眞은 鄭宗文氏)

製綿業의技術者
敏活한手腕家 尹廣夏氏

氏는 全南康津郡道岩面出生으로 當年二十歲의 靑年이라 敏活한 活動과 忠實한努力의 結晶으로 只今은 製棉界의 尊敬과信望을 占有하고 相當한地位를 獲得하고잇스며 敎化事業을 目的으로한 八尾內鮮共愛會班長으로 多年努力하고잇는바 一般大衆에서도 有爲한 靑年이라고하야 前途를 期待하고잇다한다 (寫眞은 尹廣夏氏)

朝鮮日報大阪總販賣所
大阪市旭區浦生町二丁目九五
振替大阪七二二六六番

朝鮮日報東大阪販賣所 大阪市東成區猪飼野町西三丁目

朝鮮日報西大阪販賣所 大阪市西淀川區浦江北二丁目一四〇

朝鮮日報南大阪販賣所 大阪市西成區長橋通七丁目四

朝鮮日報北大阪販賣所 大阪市東淀川區中津南通四丁目四一

朝鮮日報港正區販賣所 大阪市港區石田元町二丁目六三

朝鮮日報旭區販賣所 大阪市旭區浦生町四三九

朝鮮日報布施市販賣所 布施市荒川町一丁目三五 (布施市商工會議所前)

朝鮮日報八尾販賣所 大阪府中河內郡八尾驛前

朝鮮日報販德庵販賣所 大阪府北河內郡諸堤村大字橫堤七八

人蔘鹿茸 和漢生藥 粉末藥品 有名賣藥 直輸入貿易商
大聖商會
大阪市東成區猪飼野西三ノ一〇二 電話天王寺五一一七番 振替口座大阪三〇七六番 電略(タイ)又ハ(ホク)
支店 大阪市東淀川區天神橋七ノ九 電話堀川四一八五番
粉末工場 府下中河內郡枚岡額田六〇五

山本クローム鍍金工業所
李用德
第一工場 大阪市東成區東小橋南之町三丁目一二〇
第二工場 大阪市東成區鶴橋北之町一丁目一五五

【健康保險醫】
大阪市北區池田町十一番地
內·外科 花柳病科 肛門病科
高麗醫院
市電天神橋筋五丁目下車東入リ半町

朝鮮海陸物產問屋
共益商會
大阪市此花區大野町一丁目四 (大阪中央市場北通)
電話土佐堀一六八六番

朝鮮文印刷 活版石版百般印刷
精文社印刷所
大阪市東成區南中濱町二ノ八一 電話南六〇〇九番

太平レコート朝鮮版總販賣元 各社朝鮮소리판特約店
朝鮮各種 雜貨其他 新舊書籍 都散賣業
時昌商會
大阪市西成區北開町三丁目一 振替口座 大阪七〇七五五番

海陸食料品 都賣兼散賣商
車鉄
大阪市東成區猪飼野町中三丁目八 (猪飼野朝鮮市場)

內外藥種直輸入都散賣
普生堂大藥房
大阪市東成區中道本通一丁目一三
電話東四五二九番 振替大阪二三六七番 取引銀行三和銀行中道支店

各種高級洋靴製造元
朴元福製靴所
大阪市浪速區榮町五丁目一

大衆食堂
食道園
大阪市猪飼野町中三丁目三
金正根

本籍 慶南咸安郡北面中岩里
住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植松
各種內外向ファスナー業
趙南濟

同盟寫眞ニュース 各種畵報全國販賣
南忠鉉
大阪市中之島中之島ビル同盟寫眞ニュース社

尼崎三共商會專屬扱店
金秉訓
營業所 大阪市港區大淺橋南詰 電話築港一二七七番
自宅 大阪市此花區吉野町三丁目二 電話土佐堀四五〇三番

各種錠前 製造元
金田製作所
大阪府布施市高井田九五三ノ二

大阪市東淀川區本庄中通一丁目一九
雲丹製造販賣元海產物輸出入商
丸京大阪支店
電話北六一五一番 振替大阪二八九九八番 電符(〇キヨ)又ハ(キヨ)
本店 咸北城津港旭町六一一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大字安中
海陸物產 酒醬販賣
李致慶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植松
古物商
尹有萬

家庭

오늘・六月十日
時의記念日

옛날 사람들은 어떠케 시를 아랏나
시게의 내력은 이럿소!

유월십일은 그때의 기념일입니다 규즐적이사회생활을하는 현대인에게 이날은 대단히 뜻기픈날입니다.

그런데 옛날엔 지금파가티 완전하고 미묘한 시게가 업섯는데 어떠케 때를 알고 시간마추엇는지 여기에 옛시대를더듬어올라가 그때의시게이야기를하겟습니다.

물시게

이것은 아주옛날에 쓰든것인데 그릇에 담어노흔 물이떠러지는것을보고 그물의 분량에의해서 때를 계산하는 장치입니다.

옛날에 유태人나라와 빠빌론에서 만히 썻습니다. 그후에 지금으로부터 약이천년전에 희랍의 어떤사람이 이물시게를 좀더 완전히 만들엇다고 합니다.

이 시게는 비오는날이나 흐린날에도 편리하므로 아주옛날 구라파에서는 햇길에다 물동우를 노코 거기에 가는통을대여서그리로부터 새여나오는물이 시간을표해노흔 그릇에 담기는것을 보고 때를알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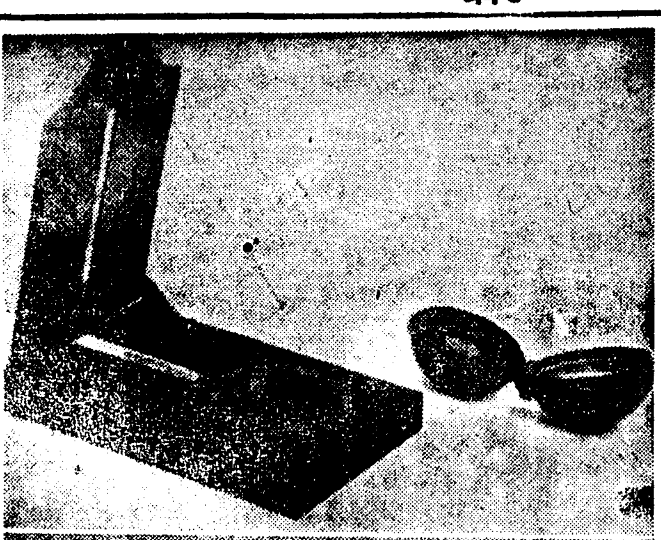
해시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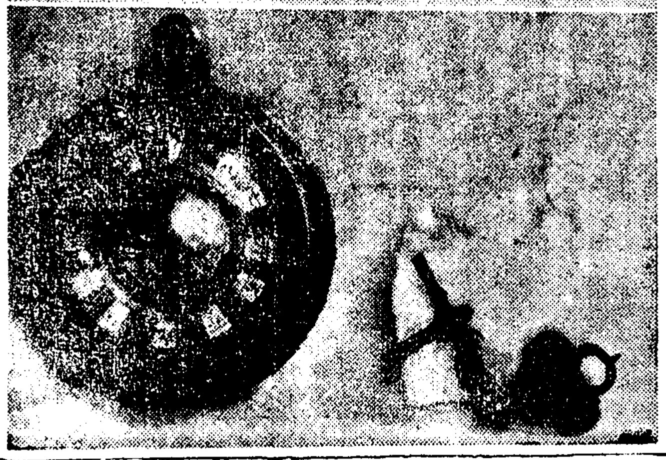
이것도 물시게와가티 대단히 역사가 오랜것으로써 해비츨이용해서 만든시게인데 지금으로부터 약이천오백년쯤해서 히브리, 빠빌론에서 발명된것으로그후 오백년쯤 지나서는 희랍파 로마에선 민간이에서 쓰도록 발달되엿답니다 그때의 유물이 시게의나라서서에잇는 성베드로사원에 아직도 만히 남아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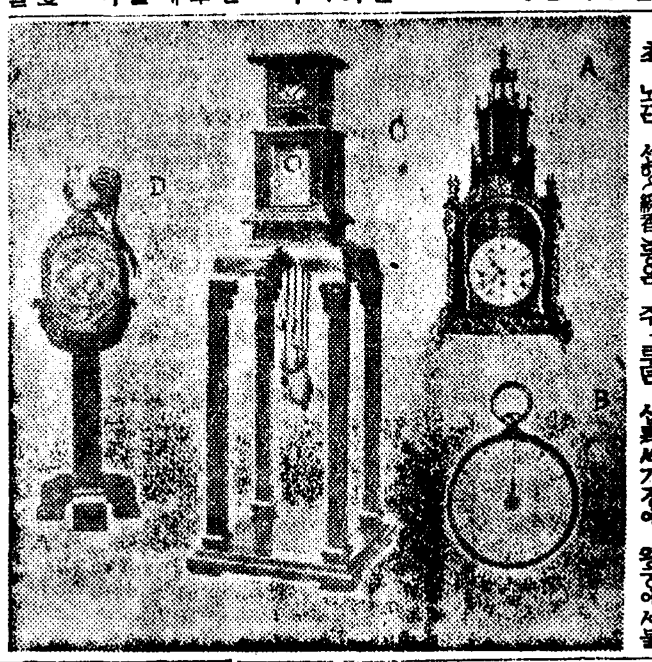
지나에선 그보다도 더먼저지금으로부터 약삼천년전에 벌써 이시게가 발명되엿스니 동양문명이 압섯든것은 알수잇습니다

모래시게

물로하는시게 햇비츠로하는시게는 비오는날이나 밤엔 쓸모이 섭섭함으로 그다음에 발명된것이 모래시게인데 이룸은 몰시게와갓고 발명되기는 서력팔백칠년에 파사의 살마이네란사람이 발명햇습니다







불시게

이것은 노끈 초 선향등잔등으로 때를아는것인데? 즉 초가한자루 타는동안은 얼마라고해서 시간을아는법입니다

초 노끈 선향(線香)등은 주로지나와인도에서 만히썻는데그러키때문에 초에다 저울눈처럼 금을 그어노핫습니다. 그리고일본에선 에도시대에 제일만히썻습니다.

람프시게란것은 근세까지도독일 불란서의 아주벽촌에선 쓰는데 이것은 기름넛는잔에다가 눈을 새여가지고 기름이 조는대로 때를 아는것입니다.

서반아 왕조의 국성시대를이루던 십륙세기경에 왕궁에서불도켜고 때도보고 하느라고 만든것이 아마 시초라고합니다

중량시게

이러케하다가 차차로 시게가 기게화를 해가는데 치차(齒車)의 장치에다 추(錘)를 달어서 쓰게됏는데 이것은 독일서 십오세기경에 발명됏습니다.

이것은 현재시게의 기초가되는 과학적인것으로써 구라파의 오래왕성가튼데 보존되여 엇습니다.

이중량시게의 적은것이 응용되여서 지금 회중시게의 선조가 되엿는데 독일 메라헨라고 하는사람이 만든것인데 지금도 그의유품이 구오-스타리제국왕실의 국보로 보존되여잇습니다.

메-라헨라에의해서갑자기시게가 진보되여서 십칠세기에이르러서는 당시영국황제나 불란서의 루이십사세를 비롯해서귀족들이 그번쩍거리는 찬란한예복에다 가슴에 줄을늘드리고 이커다란 회중시게를차고다녓습니다.

그후에 진자(振子)시게가 나와서 차츰 진보하야 오늘에이르럿습니다.

(사진은 우의것이 제실박물관의소장 고대일시게 아래는 초기의대형회중시게, A는상해상십년전시게, B는나폴레온대시게, C는홍화이년에일본에드린오차시게, D는괘천(掛川)초기에 맨든궁시게)

겨울모자
간수는이러케

양복의 수입이 굿지가되면서부터 겨울모자가지 틀잡혀여올라간이때 특히 쓰든모자라도 소중히 거둬두지안허서는 안될것입니다.

겨울에쓰든 겨울모자를 간수하는데는 위선 모자의 몸지를 솔로 잘 털것입니다.

그런데 터는방법은 모자챙을 왼손에들고 바른손에솔을쥐고모자를 빙빙돌려가면서 바른편으로 솔질을합니다. 그래야먼지가 잘 빠진답니다. 왜냐하면 모자의털은 볼레 바른편쪽으로 쓸여잇기때문에 만일 외편으로 적구로 솔질하면 몬지가 되려 엉겨서 [illegible] 기피드러갈염려가잇습니다.

그담엔 벤징이나 암모니아를 조금 무친 헝겁으로 더러운데를 살짝살짝 문질러야 합니다. 뭇친것이 [illegible] 한때 [illegible] 업도록 [illegible] 하면 얼룩이가 지지 안습니다.

이것을 먹고 새것으로 가려 덜어야합니다. 그리고 모자상자에 넣어서 넷는데 가운데다가 조히에 싼 나프타링을 넣고 조히로 잘싸서 상자에 넣습니다. 상자에 너흘때도 가장자리로 도라가면 납작해지지 안토록 덥허둘지 몇 경을 넘는 선반가튼데 언저 둡니다.

살결을희게하는 화장수맨드는법
오이나꿀을이용해서 집에서도넉넉됩니다

여름엔 끈적끈적한 기운이잇는 크림을 쓰는것보다 담담한 화장수를 써서 화장수분위의화장을하는것이 조흡니다.

화장수는 갑시싼 것을사다가 쓰는것보다는 집에서 자기손으로 만드러쓰는것이 되려 살결을 매끈하게합니다.

여기에 집에서 만들수잇는쉬운 화장수 만드는 법을말슴하면……

살결을희게하는 오이로된화장수

약방에서 봉사(硼砂)가루 한그람파 정제일금십오그람파 증류수 이백그람 향료조금―어러케 사다놋습니다 이것은 한이십전만 드리면 살수잇습니다 그담에 오이를 아조 생생한놈으로 굵고똑바로된것으로 골라니다。그래가지고 칼로 가온대를 쪼개서 남비에너코 물을조곰붓고 한번 살짝끌여냅니다。한번끓커든 불을줄이고 그대로 한참두어두면 오이가온데 조흔 성분이 물처럼되여 나옵니다

그러면 병에다가 깔대기를대어고 가온데다 약솜을 편다음 거기에 오이물을 부으면 약솜에 걸러저서 맑은오이물이 생깁니다.

이 오이ㅅ물을 육십그람쯤하고 먼저사다노흔 재료를 잘섞거서 씀니다。

이러케하면 아조 순수한 조흔화장수가 되기때문에 살결이 거친사람이나 죽은깨 검버섯에도 대단히 효력이 잇습니다。

살결이거친분은 꿀로맨든화장수

꿀이 살결을 곱게하는데 대단히 효력이잇는것은 예로부터 잘알고 잇는일입니다。이것을리용해서 화장수를 만들면 아조 훌륭한것이 됩니다。

꿀 다섯그람
정제알콜 다섯그람
오이ㅅ물 다섯그람
향료 조금
그리세린 열그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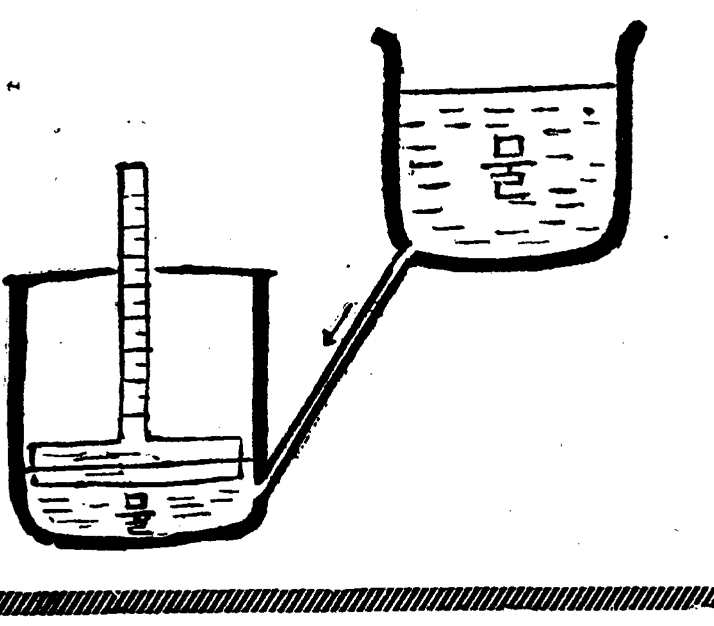
먼저 오이ㅅ물에 꿀을녹입니다

우리차지

물시게

옛날에는 물시게라는 것이 잇섯서요。적은구녁이 뚤핀그릇에서 새어나오는물을 다른 그릇으로 밧습니다。그그릇에는 금을 그어 표를새인 나무 때거를 띄워노핫는데 물이 부르니까 차구위로 떠오릅니다。그러면 오른 그런보아서 시간을 압니다。

([illegible])



長篇小說 愚氓 【52】
朴泰遠 作 / 洪祐伯 畵

長壽山行 (四)

「너무 어서 어리 드러오너라 그 웨 바게가 서서 그러니?」

최건영은 그래도 전에 잇슬때와는 딴판으로 쾌활한 어조로 말하엿다 어린 누이는 처음 대하는 화수아버 부끄럽고도 방문턱에 약전히 스르럿던 수절은 태를 갓눈길 업스면서 버서 노코 안으로 들어와 오빠 여메가 안는다.

그러나 옹전이가 수접어 하고 또 부끄러워 하는것은 오직 화수가 처음 대하는 젊은 남자인 까닭만이 아니다.

옹전은 어제 오빠의 열으로부터 난데 업시 장수산 구경을 떠나자는 말을 드럿슬때, 대체 어것은 어이된 까닭일까 하엿다. 하라버님 변한이 더욱이나 대단하신 이제—」더구나 자기의 혼담때문에 문제가 만흔때 어째서 오빠는 갑자기 자기를 데리고 놀러나가려는것일까?—물론 자세히 알까닭은 업서도 그곳에는 딴면코 무슨 기픈 뜻이 잇슬것만 가탓다.

부모가 정하여 주신 혼처에는 옹전이로서도 불만이 잇섯다 오빠가 자기를 위하여 열렬히 반대를 하여 주는것에는 눈물이 나도록 고마웟다 그러나 아버님이 종시 주장을 세우신다 하면 자식된 도리로서 어찌 그말슴을 거역할수 잇스랴?—그러케 생각하는 옹전이엿스나 오빠의 태도가 아버지에게 못하지 안케 강경한것에는 속으로 은근히 감사하면서도 좁은 가슴이 아펏다 그러지 안허도 사이가 조치 안흔 아버지와 오빠가 자기 혼담을 가지고 저처럼이나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것이 마음에 두려웟다.

옹전은 이를테면 아버지보다는 오빠를 좀더 따랏다 오빠는 누이를 사랑하엿고 누이는 또 오빠를 소중히알엇다. 단지 남매 사이라 그들의 서로 에끼고 중히 여기는 정은다른 동기간에서는 보기 어려웁게극진한것이다. 그러나 물론 그러타고 하여 아버지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업는것이다. 몹이 똑가티 주장을 내세울때 참말이지 옹전은 누구의말을 들어야 할지—, 될수만잇는 노릇이라면 자기의 몸을둘을 내여 아버지 말슴도 순종하고시퍼고 오빠 하라는대로도하고시펏다.

그러다에 오빠는 갑자기집안 어른들의 모든 반대를 물리치가며 자기를 끌고 바그로나왓다。들바구니에 끼여서 울면서도 오빠의 말슴에는 아버지보다도 좀더 거역하기 어려운것이 잇슴을 느끼고, 옹전은얼굴도 붉으채 따라나섯다. 그러나장수산으로 곳장 가지안코 웬선물은 온천장에 옹전은 못마거도 오빠의 친구인듯시픈 화생을 발견하엿다. 화생을 보자 옹전은 순간에 얼굴을 귀바퀴까지 붉혓다. 물어볼것도 업시 오빠가 저를 이러케 끌고 나선것의 참뜻을 알어차린 까닭이다.

오빠는 자기를 턴으로 가르치며 화수에게 말하엿다.

「내 누이 옹전이。」

그리고 다시 자기에게 향하야, 은근히 일러준다.

「서울 게신 김화수씨。」

옹전은 가까스로 약간 몸을 숙이엿다. 눈이 마조첫슬때, 화생의 학생편으로 돌리여 목례를 하엿다。눈이 얼굴에도 부끄러움이 잇는것을 발견하고, 처녀의 가슴은 울렁거린다.

돈두지 이제까지 업던 경험이다. 점잔흔 집안에 태여나서 이제껏 엄격한교훈를 살어 오는동안, 그가 집바께 나서 보기는, 보통학교 다닐때 평양으로 수학여행을 갓다온것 박게 업다. 그나마 학교를 졸업하고는 그대로 집안에 들어안저, 참말 대문밧게도 졸처럼은 나가지안헛다. 이제 더구나 나이 자자 오빠에게 이끌리여 어러케 온천장 구경을 하고, 또 처음보는 남자와 인사를 바꾸고 그렁출은 참말이지 꿈에도 생각할수 업섯던 일이다. 그런이아니다. 오빠는, 어찌면, 저 학생에게 자기를 주려고 생각하고 잇는것이나 아닐까?

옹전이는 문득, 자기가 어러케 온천장 련판방에가, 다른남자와 함께 안저잇는것을 아버님어 보신다면 무어시랄까? 어머님이 보신다면 무어시랄까? 어른이 보신다면 옹전은 고개를 시엇는 변이라고 하시리라 생각하니, 옹전의 얼굴은 더욱 달코 가슴은 좀더 울렁거렷다.

그러나, 오빠는 태평이엿다. 학생을 보고,

「아직 아침 안자섯지? 어서 자시라구……, 우린 그동안 원천이나 하고 나오께…… 옹전아. 너도 평생 처음으로 원천 한번 해봐라. 녀, 여기 모두 오빠 잘두리어다. 하하한」

十錢으로 病을고치는時代가왓다

이것은日本藥學의勝利입니다。大學目藥本舖의研究部에서多年研究한結果는, 어떠케 잘듯는藥이 모도 「이러면것이나 一個十錢」 어마는놀나운廉價로賣出되엿다。그것은實로在來의一般藥價의半額도못되는廉價이다。貴下의求하는藥은어떤것이나十錢입니다 얼로부터는누구든지十錢을가저고 藥店으로가서「大學十錢家庭藥」(二十種)中에서自己病에適當한것을選擇하야 할수엇습니다。

어째서싼가

◉大學十錢家庭藥 疾病에따라二十種이잇다

胃腸의疾病에는 大學胃腸散 大學胃下劑 大學下痢止 大學驅虫錠
虫病으로는 大學頭痛錠
上氣病으로는 大學齒痛錠 大學腹痛錠 大學感冒錠
感氣로는 大學せき止 大學清凉劑
夏中病에는 大學皮膚藥
外用藥에는 大學外傷藥 大學痔疾藥 大學水虫液 大學メンソレータム
婦人病에는 大學婦人藥
小兒의病에는 大學奇應丸 大學小兒かぜ藥 大學小兒せき止シロップ

▲各藥店에잇슴

大學十錢家庭藥

二十種잇다 一個正價十錢 (二十種各一個 合計二圓)

大學目藥本舖
大阪 參天堂株式會社 發賣

學藝

古典研究의 歷史性
傳統의 全體的秩序를위하야

古典復興의 理論과 實際 ⑤

崔載瑞

古典研究가 單純한 古書의訓詁註釋이거나 또는 古物辭의對象이아니라면 그것은 歷史性이 잇기때문이다.

古典 研究는 어떠케해서 歷史性을가지며 또 가질수잇나? 이點을 좀생각하야보겟다.

原來로 Classic(古典)은 羅甸語 Classici에서 나온말인데 Classici란 한社會안에서 選別된少數의市民을 말한다. 資産과 敎養과 其他 모든點에잇서 大衆과는 區別된地位에서고잇는 市民階級이엿다.

文學作品에잇서서도 한部門을代表할만한 作品이면 크라씨이라할수잇다. 이리하야 어-벵·배빗트는 다음가티 말하얏다『한 物件이 獨自的이아니고 한階級의 代表作일때는 크래씨이라한다. 이런意味에서 醫師는 醫聖扶斯의, 古典的 病症, 히스테리-의 古典的狀態라할수도 잇슬것이다. 浪漫主義의 古典的實例라고한대도 無妨할 境遇가잇다. 무엇이나 最高의代表的地位에 屬하는者이면 古典的이다.』(『古典的』과『浪漫的』)

그러나 우리가 古典이라면 依例히 年功을 싸허서 **後世**의尊敬을밧고 그方面의權威로서 承認되는 作品을意味함은 무슨까닭인가? 그것은 古典이 傳統과分離되야 存在할수업기때문이다 그러기에 쌍트·브-브도 다음가티 말하엿다. 『古典이라는觀念은 그自身가운데 連續性과 安定性을가진 그무엇——全體를 形成하고 傳統을맨드는 그무엇 傳承되고 持續되는 그무엇——을 包含하고잇다.』(『古典이란 무엇이냐?』)

假令 前無後無한 天才가 나서 非凡한 作品을남기고 갓다할지라도 그뒤에 그를追從하는 作家가 업고 따라서 그의 文學的血統이 斷絕되엿다면 우리는 眞正한 意味에잇서서 그것을 古典이라고부를수는 업슬것이다. 以上에말한 古典의 代表性과 持續性은 생각하면 決코 偶然한것은 아니다. 그것은 古典의選別이 傳統안에서만 可能하기때문이다. 이境遇에 **傳統** 이란 全體的秩序이다. 古典은 하나하나가 傳統的秩序를構成하면서도 그와同時에 그全體的秩序에 依하야 裁許되고 定位된다.

티보-데가 『職業的批評은 冊을읽고 그冊들로부터 共通된理念을抽出하야 모든時代와 모든場所의 書籍사이에 一種의社會를 假定하는批評이다』라고 햇슬때 그는 古典으로부터 傳統을構成하는 一面을 말하얏다. 그러나 그는이秩序로부터 꺼구로 古典을決定하는 一面도 잇지는안헛다. 그는 그實例를 부르티엘에서보앗다.

古典研究의 歷史性은 여기서 생겨난다. 한古典을 研究하되 반드시 그가 全傳統의秩序안에서 占領하고잇는 그地位에서 생각하는동시에 傳統의 全體的秩序는 반드시 古典들의傳承과 相互關係에依하야 構成乃至 維持되는데서 古典研究의 歷史性은 實現된다. 古典은 後世의 作家가 模倣할典型이고 服從하여야할規則의 法典이라 생각치안코 人間叡智의最高表示로서 後世人에對하야 **無限**한可能性을 가지고잇다고 생각하는데서 그리고도 傳統은 固定된權威로서 個人에對한 絶對命令者가아니라 個人에게 正統的意識을주면서도 個人의所産에依하야 不絶히 修正되고 또豐富化되는 움직이고 흐르고 자라나는 것으로서 생각하는데서 眞正한 歷史性은 把握된다. 그러기에 古典은 다만 古典을파뿐만아니라 나날이 生産되고 나날이 反省되는 現代作品도 [illegible]하야 考察되여야할것이다. 現代作家에 古典的意識이 必要하다면 古典研究家에 現代的意識이 必要할것이다. 歷史性이란 한意味에잇서서 相對性이다. 그러기에 에리옷트는 다음가티말하얏다.

『傳統은 외선 歷史的意識을包含하고잇다. 그리고 歷史的意識이란 過去의 過去性뿐아니라 그現在性에 對한 知覺도 包含한다. ……歷史的意識이란 無時間性을 知覺하는同時에 時間性을 知覺하고 또 無時間性과 時間性을 同一時에知覺하는 意識이다.』(『傳統과 個人』) 現代作家가 늘 古典을 意識하고 써야한다는것과 古典研究家가 늘 現代文學을 念頭에두고 잇서야한다는것은 다가티 傳統이 우리에게 全體的秩序를要求하기때문이다.

第十七回 朝美展評 ③

金復鎭

第三部 工藝及彫刻

나는美術展覽會에가기前에 德壽宮內李王家美術館을 먼저보앗다 李王家美術館이新築되고 오늘만이門外不出의 許多한秘品을 觀覽시킨다하므로 旅毒이채풀리지안흔 다리를끌고갓섯다

나는過去朝鮮의 아름다운工藝를對할때마다 무척옛날이 그리웁다 『角張化粧箱』(二層漆器部)아페서 곱게丹粧하던 『자근아씨』를 생각해낼수도잇고 『象嵌靑磁梅竹鳥文書板』을가지고서 王羲之의書法을 工夫하던 부지런한 道令님을 그려볼수도잇고 『象嵌蒲柳水禽牧丹之瓜形甁』을 손쉬게어루만지던 마님들의 裕福하엿던 生活이무척그립다 한時間 두時間 세時間이지나는것을 이저버리고서 過去朝鮮의彷彷曲曲을 헤매니 그만큼浪漫的이며 感傷的으로 기우러진다 부질업는 文學的瞑想이라고 말할수잇스리라 그러나 이자리를떠나서 鮮展會場에드러서니 어것을더욱 느껴진다 이것을어찌하랴 鮮展工藝部에 配列된七十餘點의 工藝品이近代朝鮮의 어떤것을 어떠케말하고잇슬까 어떤것은 纖細한것도잇기도하며어 러타고하여서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잇는가 高麗朝工藝品의 無限한맛이라든지 李朝時代의 工藝品이 가지고잇는 素朴의情은 지금의우리에게 無限한魅力을 주고잇다 나로서는 오직 바랄것은 鮮展會場에 가득이찬 이모든工藝品이 압날의 世界에서 참된意味를 차저낼사람이 생겨지만는것이니 그것은 지금의 우리로서 도지 알어지지못하는 緣由이다

그다음은 彫刻은

○李泰相氏『[illegible]』은 [illegible] 製作時日의 關係인지는 알바업스나 手足의無[illegible]으로 [illegible]엇스며

○[illegible]氏『[illegible]』는여기서부터 무엇을[illegible]가하는것을 알어주엇스면하며

○金午一氏『胸像』은 [illegible]에 [illegible]이라느니보다 [illegible]가 第一눈에 띄어보이고

○金中森氏『自作像』은 [illegible]으로 [illegible]에 困難하바만코—

나 大[illegible]하며

○[illegible]氏『[illegible]女子』는 [illegible]하다고 생각하며

○金丁秀『[illegible]의 直』는 [illegible]의研究를[illegible]하고시프나 [illegible]像으로서는 가장迫眞力이잇서 보이엿고

○尹承相氏『[illegible]』은 [illegible]에서 [illegible]을 求하는 大理石彫刻이니만치 未完成品이나마 [illegible]을 가저진다 [illegible]을마치고이 따에서 [illegible]것을 [illegible]가위하며

○[illegible]氏『W[illegible]像』은 [illegible]部와 毛髮에 再考를 要한다

『郊外스케취』崔桂淳氏作 (朝美展特選作)

失幸記 (上)

一懷 : 友 : 隨 : 筆 一 (二)

李歙河

[illegible] 가다 이아름다운 봄을 채다보내지못하고 기리 가버리고 말엇다.

×

世上의 대강한 사람모양으로 나도 不幸한 運星아래 태워난것을 늘 愾嘆하는사람의 하나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가리 薄福하고 不幸한 사람은 업는것가티생각되는것이다. 그러나 나의 모든薄福과 不幸에도 不拘하고 도라보아 스스로 認定하지 아니할수업는것은 내가 지나간 半生동안 내주제에 넘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만흔 同伴을 가저왓다는데잇서 至極히 多幸하엿다는것이다.

이것은 내가 서울온以來의 四年동안을 두고 생각할때 더욱이 그러하다 四年來의 나의 서울살림은 말하자면 나의 友交의 全的생활을 出現을 意味하는것이엿다. 그러나 나는 이四年동안에 잇서서도 만흔 同伴를 어들수가 잇섯다. 그런데 即今 福樂子의 글을 밧고 다시 한번 나의 지나간 四年동안의 友交를 도리보니 龍喆兄을 中心으로 매저진 벗이 그중에잇서 내가 서울서 어든 벗의 太半을 이루고 또 雅淡하고 아름다운데잇서 그벗들이 꼿내게는 가장 소중한 벗들이된다. 따라 나는 龍喆兄을 일흠으로써 나의 友交에잇서 가장 緊要하고 아름다운 지치를 하나 일흔셈이다.

×

내가 처음 龍喆兄을 본것은 내가 아직 東大門밧 同伴집에 寄偶하여 잇슬때의 일이다. 저녁을 먹고나면 의례히 하는 버릇대로 하루동안 싸인 이야기를하려고 同伴방에 내려가니 하루저녁은 그첫印象에——잇서 나 용하고 얌전한——조의 同伴에서 몃지아니한— 나는 그를 얼마아니하여 이름의 氣質이 아조 愉悅하다는것을 發見하엿다——한친구가 나의同伴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잇섯다. 그것이 알고 보니 龍喆兄이 엇섯다. (내가 진술 두루매기를 입어섯고 내同伴가 흰두루옷을 입어섯고 龍喆兄이 부라운의 洋服을 입어섯스니 바로 이때의 일이엿다가한다)비록 初面이나 나의 同伴를 通하여 서로잘알고 잇섯기때문에 우리는 初面의 어색함이 업시 여러가지이야기를 하엿다.

그는 나의 同伴에게 原稿를附託하러 왓섯든지 原稿엇기가 힘들다는것을 力說하고 잇섯다. 그리고 또하나 記憶되는것은 그가 나보고 『똥똥한것이 아조 시골양반갓다』고한말이다. 시골양반이란것은 그러케 반갑게도 들리지아니하엿지마는 똥똥하다는것은 매우 반가웟섯다. 四五個月을 病으로 休養하던 남어지가되여 아직 健康이 무엇보다도 큰 關心事 엿기때문이다.

그後 一年二年동안은 가티 서울 잇스면서도 別로 來往이 업섯다. 本町 通에서 偶然히 한두번만난것이 記憶에 남아잇슬따름이다. 한번은 몹시 기운이업고 또 憔悴해보엿다. 웬일이냐고무르니 한동안 肺를알코난뒤라고 쓴것을 배앗는드시帝大病院에 가 診察하니 한쪽肺가 거의다 傷했다나요 어쨋다나요 하고부처말하엿다 나는 이말을하던때의 그의 語調를 오늘까지 잇지아니한다 病을 조곰도두려워하지아니하는 사람의語調엿다.

그러나 생각하면 그가病을 조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엿다는것이 그가 그後 쉬이健康을恢復한 所以가 되는同時에 오늘도 그러케갑자기 가게된 所以가되지안헛는가한다

聖住寺巡禮 (二)

鄕土文化를 차저서

保寧行

李昇圭

傳說을들은즉 昔日에는千名의 僧侶가合宿하엿는데 朝夕飯米를씻은 뜨물이 그洞口밧게十里되는 明花里까지 흘러갓다한다 只今은寂寞한廢墟에 春草만욱어지고 無心한山鳥들은 여기저기서울어 往昔을弔傷하는듯이다 나는『鷄鳴側塔千年穴 寶殿碑太古書』라는詩를 을퍼보고한참동안 茫然히서잇섯다 碑文을據한즉 白月선師의俗姓은金氏오 法號는無染이니 新羅武烈王의八世孫이오 父는範淸이오母는華氏라 선師가일직唐國에들어가 佛法을精通한後에 本國에도라와 兩朝國師가되엿다가 距今一千九十一年前에 聖住寺에來住하야 四十三年동안 說法하다가 眞聖女王四年庚戌에 入寂하엿는데 王이 大朗慧和尙의 諡號를수시고 崔致遠先生을 命하야 碑文을製述케하시고 崔仁滾先生을 命하야 碑文을書하라하야 聖住寺前에 세운것이다 邇來千有餘年間에 風雨의 磨洗도 만히지나고 滄桑의變遷도 만히보앗섯다 이러한百劫을 지난저碑는 只今까지 無恙存在하야 後人의 敬慕를 이르키게된것은 선師의 無價한 弘法을 感歎치아니할수업다

이로부터 碑文拓本에 着手하엿다 全面을○印하려면 朝鮮壯紙九幅이든다 下面數幅을印出하는동안에 夕陽은벌써 西嶺에 넘어가므로 손을떼이고 李東薰氏의 집으로가서 一夜를經宿하엿다

翌十九日에 白雲寺를 訪問키爲하야 떠낫다 그때는隨行員二人을시켜 碑文拓本에助役하게하고 나의單身으로 萬壽山中을 向하야 들어갓다 十里를거러가는동안에 人家는하나도 보이지안코 山猪의때는 여기저기에 몰려다니고 다만물소리、솔소리、새소리、바람소리가天然의音樂을 合奏하야 山中의寂寞을 깨트린다 나는이 萬壑自然한속에서 한참동안 쉬여안저 어느듯三昧境에 들어갓다 다시勇氣를내여 數里를가니 一座의殿角이 松林사이로보인다 나는엇든 新大陸이나發見한드시 반가히向하야들어간즉 主持金東元氏가 合掌出迎한다 그를따라 白雲寺에올라가서 四面을둘러보니 後는花王峰 西는白雲峰 南은三佛峰 東은萬壽山이 겹겹히둘너잇고 그正中에는 一峯이半起하야 宛然히 一叢牧丹이 半空에솟은것가트며 白雲寺가그위에잇서서 規模는비록 壯麗치못하나 淸淨蕭灑한것은 참으로比할데업는 靈境이라하겟다 寺의創建은 新羅善德女王十三年(距今一千二百九十四年前)에梵日國師의 建築한것이며 그後李太祖三年에 無學國師가 重修하고 그後로再三次重修하야 今日에 至함으로 昔日新羅時代의建築은 볼수업고 其他古蹟도 또한文獻이無徵하야 詳考할수업다 寺의東便林麓속에 有名한 藍浦硯石鑛이잇서 李朝時代에 進上하든 珍品인데 近年에는 그鑛區를 封鎖하야採取치못하게하엿고 [illegible]覺하엿다 最近에 本寺의[illegible]으로 [illegible]을 出願하야[illegible] 一[illegible]의 認可를 엇는때에는 藍浦硯의 珍品이 吾人의文房에 오를것이다 나는그拓本을 親察하고 聖住里로 도라왓다

漢詩

題梨花 押香 桐岡 孝濟

佳作之十一

平安北道[illegible] 洪鍾得

東風三月艶天陽
淨白梨花滿樹香
雨後初開稀見雪
朝來大發遠埋墻
馬河村裏千株植
長樂坊中十里芳
成實團圓宗百果
園遊淸趣可傾觴

新刊紹介

▲農用器具機械購入指針 昭和十三年版發行所 東京麴町區大手町二丁目二 農林省內 大日本農機具協會 振替東京六一八二五番定價五十錢 送料十四錢

▲平壤勉勵會報 第四十四號 發行所 平壤府景昌里八五 馬布記念館 平壤勉勵會報社 振替京城一六七九四番 定價一部五錢

歧路 (六)

本報當選作家短篇리레-

金廷漢 作
崔根培 畵

그래도 개똥이가 몸을 얼른 빼내지못하니깐, 그는 작대기를 휘둑 후려들고선 번쾌가티 눈을 부릅뜨며,

『이년석이 누구아페서 엉석을 부릴려구들구!』

『아니, 아니……나, 나, 나리. 제-발 살, 살려줍——』

개똥이는 한손을 빼들고 급하게 사정을 햇스나, 결국 몸강수런 매를 서너개 어더맞고서 겨우 일어섯다.

은파는 제일끼리 혼이나고한숨이 나왓다. 그는 무의식중에 자기남편 일러를 살펴보앗다. 물론 거기도 노랑바지의 갈쭉들이와다갓다 하엿다. 그는 불이나케 남편에게로 달려가서그를 집으로 더리고 가고서든 생각이 북가티 일어낫다. 그러나 그것도 잠간이엿다.

『제-기 우리부모가 하로저녁만 참엇드면 내가 이고생 안해도 될걸!』

역시 자갈을 진 한녀석이이런 푸념을 하면서 더벅머리를 숙이고 엄치럽진 재양볼을 다시 주서모으고잇는 개똥이의겨틀 지나간다.

하늘을 가로막은 앞산넘어서 검으스럼한 매지구름이 끼림풀고 넘어오드니 바람결이 불각시 더 매워진다. 은파는 흔들리는 치마자락을 끌어가 바빠다. 그래도 『시방이종노은 안될다.』

사무소 문안에 전표를 받주머니와 돈 받장수패가 야를 다투며 뫼어섯다. 은파는 처에는 수월케 밀려나갓스나 용울호북 얌자를 빼앗기지 안는다.

시간이 어지간히 됏는지 를배가려 생긴 사무원 하나가져우 창문을 열고 내다본다 안에선 더운김이 확끈 나온다.

사무원은 빼아매 선 은파를보고서 눈질눈질 은파의 매무새를 훌터보앗다.

은파가 외면을 하고 대답이 업스니깐

『물장사 아니오?』

다른사람이 잇다 아니라고할해주엇다

은파는 나려 불을 노흔듯이 떳다 어디 구멍이라도 잇스면 꼿 드러가고 시펏다.

당여히 바늘것을 밧는게지만 손을 내밀기가 죽기보다실혓다 그러나 종이 울고 문이 열리자 그는 남먼저 손을 내밀엇다.

전표와 돈을 밧은 그는 물아도 안보고 그곳을 떠낫다.

그는 이러케 중얼거리면서그꼿 찌릅눕나왓스나 그돈을 그래도 허리춤에 찬 빨간 밥주머니에 꽁꽁하게 집어넛키가밧브게 주막거리를 향해서 기우듬한 신작로를 가비얍게 내달렷다. 불근고무신 짝이 몃번이나 버서지도록.

그리하야 한손엔 청국장애길서되, 또한손엔 밧삭 말은 북어두마리와 석유한병을 사서들고 집으로 들어왓다.

물론 두보는 아직 돌아오질 안엇다.

은파는 가늘어진 팔목이 절리도록 들고온 짐을 죄다 마루턱에 부되떠려노코는 그길로 방으로 들어갓다.

오래 비웟든 집가티 싸늘한 방바닥이엿지만, 그래도 맘만이라도 아래목으로기서 울다울다 못해 그만 쿨-쿨 잠이드러남이를 내려덥힌다음 그는 넉일흔 사람처럼 불컴 생각도 안코 한참동안 어둑친친한 방한가온데 멍-하니 펄치안잇자섯다.

밤이 채 으슥한 뒤엿다.

『우, 우, 커진 수채구멍이야』

『옹, 옹, 맨잔허. 그, 그-러나 이거 부인께 미안 한걸.』

『천만에!』

울바게서 허풍으라진 소리가 잠간 들리더니, 잇다라 짝리자면, 『대감 들어가십니다』하는건 남편의 소리가 분명하다.

은파는 선잠깬 눈을 서섯부비며 등잔불을 도두다욱 마루끄테 오뚝 나선다.

마당 한가운데 검으스럼한그림자가 송장가티 꼼짝안코 서잇다. 어째보면 하나도 갓고, 자세보면 둘도 갓고.

『허허허! 어떤가 이사람, 가정교육이 상당하지?』

남편은 너털웃슴을 우스며, 어깨 동무를한 경친구의 잔등을 툭-친다. 그리곤 둘이서 한덩어리가 되가지고 갈지짜로 비틀거리며 뜰미트로 닥어선다.

『영감을 이러케——』

하는 은파의 말을 가로막어서,

『허-이거 가뭇떠러질 소릴랑 말고, 어서 이거나 바더.』

하고 두보는, 아니 돌은, 두엄 죽-내밀엇다. 술, 안주——그러랴.

그러나 은파는 그걸 밧기전에, 가치오는사람부터 알려는 눈치다.

『미안합니다.』

하고 만식이가, 고갤, 굽벅해보이니까,

『애그, 선생님이엿서군요!』

하곤, 억지도 상울 푼다.

『암 그래야지. 유봉자원령래면 불여락호아거던. 어서 술데여오라구.』

두보는 만식을 떠밀며 방으로 들어간다.

만식이는 한번더 굽벅해 보인다.

『아주영 미안합니다.』

두보는 발로써 이불을 한쪽으로 말어부치고, 만식이와 마조안젓다.

담배피는이의
スモカ
齒磨

스모카는主로 喫煙家의齒磨입니다 드래서수모카를쓰시면 煙草의진이곳떠러집니다 그리고喫煙家가 우연지라도 누구의齒牙에나 純白한빛을나게합니다 스모카는 適度의喫煙에서 생기는입안이해진때 냄새? 食慾不振? 그것을防止하야口腔을衛生的狀態에둡니다 스모카의粉末에는 그[illegible]을適當하게했습니다 그것은가루의 [illegible]을막기爲하는것입니다 一人一個의用量은約一個月分、이以上의消費는 [illegible]다

煙草店에 有함 十五錢

煙草店 雜貨店 化粧品店 藥店에有함 定價十五錢

始祖 老牌

表效如神

雞冠蚊香 (계관모기향)

雞冠蚊香의絶大한信用은 實로그効力에잇습니다

모기향을사실때에는 늘이오래다고효력이제일조흔 계관모기향 이라고차저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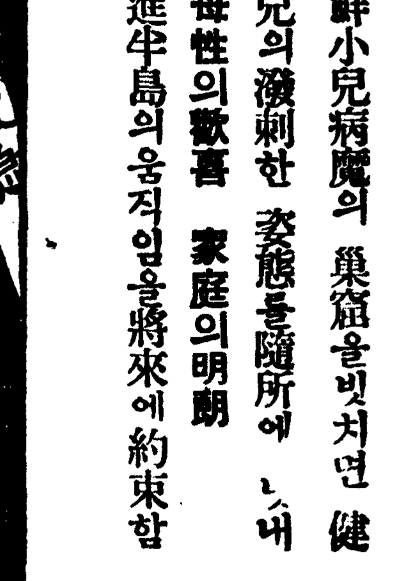
大阪 キンチヨール本舖 大日本除虫菊株式會社

昭和의常識

[illegible]

血行을旺盛케하고 참다운健康美를만드는……

仁丹



救急 治病 保健

小兒良藥

樋屋奇應丸

靈効燦然히 旭日이떠오르는듯 全鮮小兒病魔의 巢窟을빗치면 健康兒의潑剌한 姿態를隨所에 늣내서 母性의歡喜 家庭의明朗 躍進半島의움직임을將來에約束함

藥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外二 [illegible] 一圓

主効 감기、회、열、기침、경련、夜泣、홍역、吐乳、下毒、食傷、[illegible]、宵便、消化不良、胎毒、其他病한小兒

本家 大阪天滿 樋屋合資會社

13—KK—8

七日ヨリ十日マデ 四日間 [illegible]公開

大每ニユース

大活劇 ハヤブサヒデト主演

第二篇 魔人幽靈塔

主演 ジヤツク·ホルト

モロツコの動亂

主演 [illegible]

法羅八二人旅

毎日[illegible]二回興行 第一回 晝 第二回 夜

永樂町 本三〇一四 中央館

六月九日晝間부터四日間大公開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 均一

毎日三回興行 一回十二時、二回 [illegible] 七時半

廿世紀폭스社二百萬弗映畵

[illegible]氏監督 銀盤의女王

[illegible] 共演

松竹大船超特作全發聲

原作 ウツトハウス氏 監督 清波功雄氏

君と歌へば

高峰三枝子、小林十九二、爆彈小僧外オールキャスト

日本商事映畵社提供 歌謠集

賣れつ兒も聽く

現代流行歌手及漫談家 諸氏諸嬢の豪演

大每ニユース

第一劇場 電話光一七五五

事變下의 우리小工場

傳統자랑하는 鍮器業은 旺盛
銅制限令도 본체만체

戰時工業에의 優先配定에基하야 不急不要品의 軍工業品原料消費制限은 當然하다고볼것이거니와 鐵節約을爲하야 鐵鋼產業의制限이잇섯다가 뒤니어지금은 家庭日用品에까지 制限의손이뻐치고잇스며 銅에잇서서도 처음에는 鍮器用만의 使用을制限하엿섯스나 그것이生活必需品鍮貨에 이르기까지 그制限이 擴大되여 잇는바 이가튼消費制限의動向은 結局그解決點이 國家生活에잇슬 것이다

그런데 總督府에서도 內地와 步調를 一致하야 昨年부터 實施하여오든 銅合金使用制限도一層範圍를擴大하야 지난五月十日부터 實施하고잇는데 同法令의 銅合金이라함은 眞鍮 靑銅 鉋金 洋銀 赤銅을稱한것이다 그런데 特別한 事情에依하야 이것을 原料로製品을製造하고자하는 者는 道知事의 許可를 어더야 한다고하엿스나 實際에잇서서는 輸出品을除한外에는 許可하지안는方針이라한다

어러한經緯로 使用이制限된物品어만허진것은 生活上 적지안흔不利와不便을 齎來하는것이事實로 同法令으로 因하야 우리 朝鮮家庭에서 各種 食器 대야 火爐等一般이 使用하는鍮器를製作하지못하게되엿다

그런데 이鍮器製造는 平安北道定州가 其名產地요 大本山이나 京城에도 에오개나 東大門밧게는 四五十年의 오랜歷史를 가진鍮器製造業者가 한둘이아니다 同法令公布以來 其近況을알기爲하야 에오개에서도 가장歷史가오래되엿다는 完信鍮器店을 차젓드니 店鋪에는 各種食器、제금、火爐等을 整然하게 陳列하여노핫는데 店鋪뒷방에서는 요란한무슨소리가 귀를아프게한다 일직이 製造하는工程을본일이업서서무슨소리인지는알수업서스나 鍮器를 製造하는工場인것은 틀림어업다 工場이래야四方六尺한間이나될가말가하는 적은房에서五十어나 가까워보이는 老人職工 二人이 鍮器를대패로깍고잇는데 鍮物을치는소리가되여 귀가아프게요란스럽다 鍮物은다른곳등서 製造한다하야 보지는못하엿스나 와쇠(鍮器)를녹여서 型에부어가지고대패로 깍거서 光澤을내는데 처음鍮物만으로서는 多少두러운것을 光澤을내게하기爲하야 原材料의 한三分의 一가량을까거낸다고한다 春秋로 賣買가 만흘때는 鉋金이라는 原料를 內地로부터移入해왓는데 今番의 銅合金使用制限令으로 因하야 鍮器를 製造하지못하게 된 理由는 이 鉋金이 必要한까닭이다 五月十日以後부터는 이鉋金을買入하지못하게되니까 鍮器를 製造할수업게되엿다고 하는것인데現在少量으로 製造하고 잇는것은 民間에서 集合한 古器或은破器를 原料로 製造하는것이므로良好한 品質이나오지 못한다고한다 그러니까現在作業을 하지못하고 休業狀態에잇는製造業者는 古器破器의 買入準備가 업섯스므로 不得已中止하게된것이다 어가러鍮合金使用制限令으로 놋그릇이귀해 진다는 報道가新聞에 發表되자 各鍮器店은 連日來客으로 메아넘 好景氣를 呈하고잇다하는데 그러면 旣製品이나 古器를原料로하는製品이 全部업서지고 鍮器製造許可치안는다면 勿論經濟的이요 보다衛生的인 陶磁器로代用할것이나 아직도朝鮮家庭에서는 鍮器製品 什器一式을 家財로여이며 使用愛好하는 因襲에는鍮器的 材料가안되는 배도아니다 業者自身은 말하지안흐나 原料도 事變前보다는 三四割高騰되엿다고는하나 上流한 그런 材料까지도加하야 아프로는 鍮器製品의價格은 어떠程度로 더騰貴할는지 豫測을 不許하는바로 地方에서는 아프로 더騰貴할것을 豫想하고 定州에서 多量買入하고잇는 都散賣商도 잇는現狀이다

京城만해도 製造業者가 六十餘戶로 家內工業의 가장典型的이라고할 이工場에도 平均二三人의 職工을 採用하고 잇는터인데 一日製造를許可치안는다면 業者들은 勿論이요 多數에 達하는 職工들의 家族의 生計가 憂慮된다

業者들은 當局에서 아직別道知가 업스므로 原料가잇는대로 製造를繼續하며 製造許可申請을 하고 무슨通知만잇기를 기다리고잇는 情勢라한다

(寫眞은五十餘年의 歷史를가진 完信鍮器店의鍮器製造光景)

(K記者訪問記)

慶南麥作大凶
八十萬石減豫想
農家糧途에影響甚大

【慶南支社發】慶南道內 一般農民의 唯一한 食糧인 麥作은 適播種時에 霖雨가 繼續하야 播子가 腐敗케된 關係로 再昨播種한것이만코 또 水分이만흔麥畓은 播種時期를 놋치는等으로 發育成績이 不良한데다가 十二月上旬부터 今年二月上旬까지에 近年에 稀少한 酷寒에 麥芽가 어러서 充實히 發育되지못하야 大減收를 豫想하엿스나 그後多幸히 天候가 順調한 關係로 發育이 比較的良好하야 多少樂觀을 하게되엿다 그러던것이 去月二十七日夜부터 慶南一帶를襲來한暴雨로말미아마 昨年總收穫二百萬石에 比較하면 約四割인 八十萬石의減收가豫想된다고한다 그러하야 農家糧途에 影響이만타고하야 憂慮中에잇다

穀用袋不足
仁川穀協當局에陳情

【仁川】穀港仁川으로서 白米布袋는 生產難이 極度로 困難하얏는데 最近에와서는漸漸顯著하야짐으로 朝鮮米引上憂慮된다하야 去六日에仁川穀物協會理事爲越久則氏以下 幹部二名이 業者代表로서 穀物檢事所本所에久米主席檢督官成田調查課長을訪問하고 그實狀과善後策에對한 陳情을提出하엿는데 一般業者로서는 關係當局의態度如何가 一般으로서注目된다고한다

大同江의白魚獲
鴨綠江을凌駕

【平南支社發】大同江白魚製造販賣組合에서 今年에 漁獲한 白魚의 數量은 七千貫으로 昨年의 一萬貫에 比하야 三千貫의減少를보이엿스나 白魚의總本營인 鴨綠江의 漁獲高는 겨우 四千貫에 머저大同江의 漁獲高보다되리혀 三千貫이 적엇다는結果를 보엿다 今年大同江에서의 漁獲高가 減少된것은 漁期中間에石首魚 조기漁獲때문에 漁船의大半이 延坪島에 向햇기때문으로 今年의 減少가 조금도 悲觀的材料는 되지안는것이 判明되엿스므로 아프로 業者들 督勵하야 品質向上에 留意하야 大同江의 名物인 同時에 平南道의 特產品인 白魚製品의 聲價를올리기로되엿다

春蠶繭價決定
共同販賣도開始

全南 全南道農務課에서는三日午前九時부터 道會議室에서道內各郡 養蠶技手二十餘名과道內製絲工場代表와 道當局으로부터 尾崎農務課長 中川產業技師等參席下에 繭價懇談會를 開催하고 總督府繭價協定會議에 對한報告를하고 全南繭價를協議決定하엿는데 그에依하야 今年度全南繭價로 決定하는同時에 五日부터는 道內共同販賣를 一齊히開始할터이라한다

慶南 慶南道에서는 今年度絲價及玉繭價格에 對하야各方面으로深重調查硏究中이든바 去三日에左記와如히 決定發表하엿다고한다

一、平均絲價는 七〇〇圓으로부터 七一六圓을 基準으로하고 取引掛目은 一六掛五分으로하되 絲價十六圓의 騰落에對하야 一掛를增減함 但上簇改良을하지안흔 繭에對하야는 前記掛目보다 一掛를減함

一、玉繭價格은 生繭一貫에對하야 上品은貳圓下品은 壹圓八十錢으로決定하다

全北 氣候가順調함으로因하야 好成績을 豫想하고잇는 全北道의今春蠶은 當業者들은勿論 一般의注目을끌고잇는데 五月三日 道農務課別室에서 佐藤技師臨席下에 片倉 全北 湖南 鈴木 鐘淵 茂木 吉田等各製絲工場代表者들이 出席하야 春蠶基準協定會를 開催하고 各地共同販賣日程따 左記事項을 協定하고 散會하엿다고한다

▲協定事項 繭價는絲價七百圓以上七百十六圓未滿時는 廿八掛半 絲價十六圓 騰落時에는 一掛增減하기로함 組合巧繭의單價는 一圓으로하되 中繭上은 二等繭七割五分 下는二等繭의六割으로하고 屑繭은二等繭의 二割以下로함 現在絲價는六百八十九圓인데 廿七掛半

▲完州郡六月四日－廿日 ▲錦山郡六日－廿五日 ▲茂朱郡十日－卅日 ▲長水郡八日－卅日 ▲扶安郡九日－十七日 ▲金堤郡十三日－十五日 ▲沃溝郡八日－十七日 ▲益山郡五日－廿五日 ▲任實郡八日－卅日 ▲南原郡十五日－七月六日 ▲井邑郡八日－廿二日 ▲高敞郡十四日－廿五日

淸州 忠北道當局에서는 本府協定繭價에依하야 三等繭以上은 指定製絲淸州工場 四等以下는 忠北地道製絲에 販賣하기로되여 去四月慶會에서 契約을締結하엿는데 共販豫想은 三等以上十一萬八千四百八貫、四等以下一萬六千二百八貫計十二萬四千六百七十七貫을 豫想하고잇다는바 오는六月八日淸州共販場 共販開始를 비롯하야 道內二十五個所共販場에 各其開始될터로 繭價는 絲價七百圓臺를 標準하야 二十八掛五分으로서 優等繭 貫當二圓七十錢 特等二圓四十二錢이라는데 前年春蠶에比하야 六掛五分의低價이나 再昨年에比하야보면 二掛五分의高價이라한다 더욱 금년은 종래동아하여옛든繭繭을 共販하기로되엿는데 同繭의上等은 優等繭價와 同一하며 下等品은二等繭價와同一하다한다

村에서는山林技手 都市서는假刑事로

自由自在한假裝으로橫行中 數千圓騙取코釜山署에被捉

【釜山支社發】남조선일대의 군부를 돌아다니면서 총독부산림과 기수라고 자칭하고 농민들에게 수천원을 편취한나머지에 다시 그수단을 바꾸어 도시에 진출하야 어떤때는 형사라고자칭하고 상인들에게 교묘한수단으로 편재(騙財)하려다가 필경 부산서원에게 검거되여 취조를받고잇는 청년이잇다. 그가짜형사는 전남광주군 방면중산리(光州郡?面中山里) 김봉광(金鳳光)(二○)이란자로 경성유벽이십이번지에 본적을둔 전서 취직을하려든것이 뜻이여하지 못하야 가지간돈은 전부소비해버렷스므로 부득이고향으로 내려오든도중에 길거리에 떨어저잇는 총독부산림과 리동수(李東洙)의 명함을 주어가지고 기회로 마음이변하야 그대로인쇄하여가지고 남조선지방 군부를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총독부산림과 기수라 자칭하고 농민들을 속하여 금전을 편취해먹으류에대구에서 절두에든 남의자전거를 훔처타고 부산까지와서는 다시 수단을 바꾸어 부내범일정 홍신상회(洪信商會)지점외수신처에 나타나서 나는김해경찰서(金海署)에 잇는 양형사(梁刑事)이면도사인데 범인을 검거국에호송하여오다가 부산서 범인을노처버렷스므로 책임상 그범인을 어내여야하게는데 마침가저온돈을 일허버렷스니 어자전거를맛고 십원을 융통해달라는등 교묘한 수단을 취하야 금전을편취하다가 그가터 채포된것인데 포켓트에는 파연 형사인듯이포승까지 들어잇서서 취조에 따라 그외에도 여죄가 잇슬듯하며 피해액도 상당하리라고한다

暴風만나漁船顚覆 漁夫五名行方不明

五日鐵山圓島에서破船發見

【新義州】철산군 부서면동포조(鐵山郡扶西面?串浦)최봉수(崔鳳守)외네명은 지난어섯째날 목선을타고 고기잡이를간후 소식이끈어저슴으로 철산경찰서에서는 동지어업조합과연락을 취하야 발동선을출동시켜 원도(圓島)연안일대를수사한결과 오일원도해안서 약오리거량되는지점에 전기선바피가른『파선』된배를발견하얏는데 전기일행선부다섯명은 출어중폭풍을맛나 배가전복되여 모다익사(溺死)된모양임으로 방금게속 사체를수사중이다 그리고 선부들의성명은 다음과갓다

▲鐵山郡扶西面?串洞 船夫 崔鳳守(三一)
▲同 同 金用俊(四一)
▲同 同 金允頒(三一)
▲鐵山郡栢梁面東倉洞 同 文成玉(三○)
▲外住所氏名不詳 一名

洋靴修繕工의特志 分錢을모아寄附

江界英實學校維持會에

【江界】수만금거부로서 명예욕에눈이어두워 사회를위하야 돈을쓰겟다고 큰소리치天코 내종에는 이공약을 위반하기를 물먹듯 손쉽게하는 해괴한사실이잇는반면에는 세상을놀내게하는 미담이잇다 강계읍내 식산은행(殖産銀行)엽골목길가에서구두수선(洋靴修繕)으로 생게를유지하는 조석종(趙奭鍾)이라는청년은 지난육일 영실학교유지회간부(英實學校維持會幹部)모씨를 차저가서 현금삼원십전이 들어잇는봉투를내노으며

영실학교에대한소식은 각방면으로 자세한사실을알고 저로서도 경성으로나마 친구들도을가하는생각은오랫스나 무엇으로써 이돗을표하오릿가 생각다못하야 약수달전부터 하로에 오전식십전식 저성으로모와둔돈이 이것이오니 우리영실을위하야 써주십시요」

하고 금고현삼원십전을 내노앗다 이것은 사회에 큰교훈이리하야 때가때니만치 일반은 크게감동하고잇다

全南水産會議員 十五名이當選

【全南支社發】전남도에서는 도수산회의원선거를 유일에 수산회사사무소에서 도내각군수산업관게자들이모여서 실시하엿는데 당선자는 어업자(漁業者)급 어업권자(漁業權者)등 십오명이엿는데 각구역과 당선자는 다음과갓다한다

區域別及當選者

▲第一區(靈光 咸平 長城 潭陽郡) 同區域當選者 大畑庄次郎
▲第二區(木浦 務安 羅州 靈岩 光陽郡)
同 郡根澤
同 木浦漁業組合
▲第三區(海南 康津 莞島 珍島郡)
同 莞島郡海苔組合
同 北平漁業組合
▲第四區(高興 寶城 和順 長興郡)
同 和田一海
同 長興郡海苔漁業組合
▲第五區(麗水 順天 光陽 谷城 求禮郡)
同 大島德光
同 岡橋隆助
▲第六區(濟州島)
同 濟州島漁業組合
同 水産物製造者
同 取引業者及保管業者
▲第七區(全南一圓)
同 康性益
同 森誠一
同 內海當謙一

稅務署長會議 緊張裡에開幕

【慶北支社發】지구상전하에서수차의 세제개정(稅制改正)이잇슨후 처음의인 대구세무감독국(大邱稅務監督局)관내 경남북십구세무서장회의(稅務署長會議)는지난팔일오전팔시반부터동국(土屋)국장 훈시하야 개최되엿는데 시국하의 세무서장회의로서 가장 중요한의의를가지고 비상한긴장리에 회의는 진행되엿다 지시(指示)사항중에는 아래와가티 대납세자(大納稅者)대법인(法人)대동족회사(同族會社)조사철저에관한건 파세를 가게로한 상사체의 건등 중요한것이 만타고한다

指示事項
一、非常時下의 業務에關한件
二、(略)
三、職員採用에關한件
四、大納稅者調査徵收에關한件
五、大法人及同族會社調査에關한件
六、特殊事項의 調査勵行件
七、朝鮮地籍協會와의 連絡協調의件
八、[illegible]取扱에關한件
九、[illegible]
十一、[illegible]
十二、[illegible]
十三、十五、十六、十七、略
十八、[illegible](以下略)

鐵道自殺도流行 平鐵서同時에兩件

一名은誤死、一名은覺悟自殺

【平南支社發】평철관내의 열차사고두건——칠일오후여덟시사십오분경 평양을출발하야 승호리(勝湖里)에 향하든 제육백사십칠열차가 선교리―사동간(船橋里―寺洞間)을 질주중 선로를통행하든남자를깔어 중상을가한후 직시 도립의원에운반해다가 응급수당을가햇스나 그대로 열시경에 절명하엿는데 참사자는황해도 수안군 도소면생어리(黃海道遂安郡道所面生漁里) 어용하(魚用夏)(三?)로 판명되엿다

칠일오후여덟시경 봉천을떠나 남행하는 제삼열차가 고읍―정주간(古邑―定州間)을질주중 머리와발이 잘리어저서 참혹하게 죽은여자의시체를발견하고신원을 조사한결과 이여자는 정주군덕언면대성동(定州郡德彦面大成洞) 김차화(金鎭化)의처 김씨(金氏)(三?)로 남편의 소지금을소비한후 강도를만나 강탈을당햇다는 허위신고를 햇든것이 발각되여 정주서에서 취조를받고 도라가던도중 남편을대할면목이 업다하야 각오를자살을한것으로 판명되엿다

日鐵用地一部에 收用令을發動!

【淸津】수용령을 발동하는나안느냐 하는기로에서잇는 일철청진공장(日鐵淸津工場)의 일부매수미정의 용지문제는 마친내토지수용령을 적용하기로되고 방금회사측에서 그수속을 취하고잇다한다

이번수용될 토지는 공장용지와 사원용지를 합처서 열두필로 그면적 어만?천평에가량하엿다

繁茂期를압두고 對岸匪賊蠢動

咸南第一線警察緊張

【咸南支社發】초목번무기를 압두고서 함남대안의 공비(共匪)들의 잔당은 또다시 맹렬한활약을 시작하야 각지방에 출몰약탈을 하고잇스며 조선내의침입을 엿보고잇는데 지난해 보천보(普天堡)사건의 전례도잇고하야 함남도경찰부장이 직접 제일선(吉良경찰부장)모지에 출동 국경경찰서를 독려하야 물샐틈업는 경계진을펴고잇스며 재향군인분회 소방조경우회등도 긴장하야 경계중에잇다

元山府廳員率先 半休制廢止決議

【元山】원산부청에서는 지난칠일오후네시반부터 동청누상에서 직원을 회집하고 옥전(玉田)부윤으로부터 전일도에서 개최한 부윤군수회의석상에서 도지사가 지운한 남총독의 오대정신에제한한당 지시사항의 전달이잇난후전직원은 시국의 중대함에비추어 솔선해 국민으로서 안일한생활을 할수업다고하야 금년도의 서중휴가(暑中休暇)제지를동의하야 만장일치가결하야 부윤을경유하야 집무하기로의론이되엿다고한다

道路工事場에서 人夫四名負傷

【淸津】지난오일아참 나남시외 나북동(羅北洞)의 일본고주파회사(日本高周波會社)공사장에서 작업하든 인부네명이 바위가 무너지는바람에 중상을 입엇는데 부상자는 다음과갓다

李福?(三○) 韓用?(三?) [illegible]

鹽原學務局長 視察次로來淸

【淸州】염원(鹽原)학무국장은 시찰차 지난팔일오전열두시경 청주에 내착하엿는데 당일오후에 시내각초중학교를 시찰하고 청주중학교에서 일박하고 수일오전에 대전으로 향하엿다

大邱住宅難緩和策으로 府營文化村創設

住宅組合도設立計畫

【慶北支社發】도시의 발전에딸아수택난이 혹심하여가는 대구에서는 여주택난으로 말미아마 주택료의 부당인상이될 우려가엿스므로 다른도시보다 차라리 맨파세궁면이 만흔대구로서는이에큰의견을 늣겨주택의 증축을 요하는것 어에대한 요망이클뿐아니라 관계당국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든중이든바 시가지계획실시기에 여서 근근구획정리를 할터인바 어기회를 리용하여 부외적당한곳을 선정하여 대구부에서 부영주택지를 설정할방침을 세우고잇는중이나 현재는기근난한현상이므로 부에서는 우선그편법으로 주택조합을 설치하여 고개회을 시행할것이라고하며 장차 구획정리이후에 문화주택존을 건설하리라고한다

大邱新町火災의 被疑者全部釋放

【慶北支社發】지난오월사일 대구신정(新町)백십오번지 포목상 박달원(朴達元)방에서 발화하야 순식간에 십사호집을전소한 근래처음보는 대화재사건으로 보험금사취의 방화라하야 대구서에서 박달원, 김순학(金順學) 양명을 유치하고 취조를해왓든바 하등증거가업스므로 그협의는버서지고 지난오일에 각각석방되엿다고한다

南長老派信者 全州神社參拜

【全北支社發】기독교 남장로파(基督敎南長老派)전북제삼십이회 총회는 유일오전팔일간 전주서문례배당(西門禮拜堂)에서 개최하엿다는바 팔일 개회하거전에 신자구십여명은 만장일치로전주신사에 참배하는동시에 황군에게감사타전(感謝打電)지원병 교육령실시에대한 감사타전등을결의하고 전주신사에 참배하야황국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로하엿다고한다

三十年間波瀾戰果 寶庫開扉의原動力

大正十五年에起工至于今

西北朝鮮橫斷動脈 平元線開通待望記

평원선!전장 이백십삼키로에 불과하일 개철도를가지고 원산의 경제동맥선이라고떠들고잇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전장이 백시산키로의 키로정(新程)에의 의가는의것이아니고평원선이가진 바산업개발의 압잡이로서의역할과 이 선을 통하야십산될 회발의 유동을가하는데서 이철도의 중요성을 차출수잇는것이다 즉평원선개통으로 그배후말미아마 그연선및배후지에잇는 지상지하의무진장의 자원을 개발하고도한소비시장의 개척으로말미아마 내선만루트의 요지에 위치한평원선의 탈도항으로서의 기대와자신을 갓는 원산항의 번영이 약속되여잇스므로서 원산시민의 이목은 언제나 이선에 집중하게되는것이다.

평원선의 산업경제를 말하기전에 먼저동선의 사적유래를 들어보기로한다.

조선철도건설사상에이 평원선처럼 파란곡절이 만흔 삼십년이란 긴세월을 거친 철도는업을것이니 이선은 일로의 풍운이 급을 고하든당시부터 군사상견지에서 당국이 주목하얏든것으로그후명치삼십팔년원산에서열린 제일회 전조선상업회의소련합회에서 평원철도부설에대한 청원서를 그해겨울 일본의회에 만장일치로 결의하야 청원하엿다 그후명치사십년에는 원산과평양에서 각각평원선부설기성회를 조직하야 대표가 동상, 리일본파력라하야 정부와·귀중량원에다 운동을 하얏스나 전시재정이팽창하든때라 여의치못하얏다 기성운동에 분투하든 사람들은 다시 자본금 이천만원의 사설회사를설립하야 조치를관철하려고일본정부와 한국정부당국에대하야 횡단선부설에 관한허가와 보조신청하야 드디어이십이회 일본의회를통과하얏스나 군사상민영은 저당치안타고 군부측의반대를맛나 수포에 도라갓다 그러나 그후도 부단히청원건의(建議)를 거듭하야오다가 대정십년 제사십오의회의협찬(協贊)을어더 건설비사천육백오십이만원(六十七議會서四一三○萬圓으로 更訂)의 통과를보고 대정십일년도에 기공하야 동십칠년도에는 전통을 보기로되엿스나 지연에지연을 거듭하야오다가 대정십오년도에야 본격적 건설공정에 올라서게되여 평양방면에서 부터공사에착수하얏스며 소화육년월이십일일에는 동부인 원산방면에서도 공사에 착수하얏다 그리하야 작년안으로 전정 이백십삼키로 중에서 평양방면의 서포(西浦)에서 양덕(陽德)까지 백이십삼키로구와 원산방면의고원, 성내(高原,城內)간 삼십키로합 한게 백오십사키로의 개통을보아 영업을개시햇고 이제남은구간은 양덕과성내간 팔십키로에 불과하나 지난달에는 평양방면 어섭키로동을 십공구로공하얏스며 머착수공구는 삼십키로로인데 엇쌧든 명후년이십오년도에는 전선을 개통할예정으로 지금공사를 진행중이다

이평원선은 함경선고원(高原)—(元山을距하기 四二粁)에서분기서진(分岐西進)하야 성내(城內)판평(館坪)천룡(靑龍)순천(順川)을지나 영덕신흥에나와 다시장림(長林)신창(新倉)은산(殷山)을경유하야 순천(順川)에 이르며 다시남하하야 자산(慈山)사인장(舍人場)을 거처 경의선의서포(平壤을距하기三粁一)에달하는 서북조선에잇서 유일한중요횡단선으로의 어백십삼키로를말합니다.

산물로는 농산물을위시로 양잠업이 왕성하고 산간에는 목축업이 발달하야 소를비롯하야 말、도야지、닭、토끼、양、면양(緬羊)등을 만히산출하고잇다

그리고 연선일대는 산악부이므로 가는곳마다 밀림지역(密林地域)이산재하야 그축재량은 상당한수량에 달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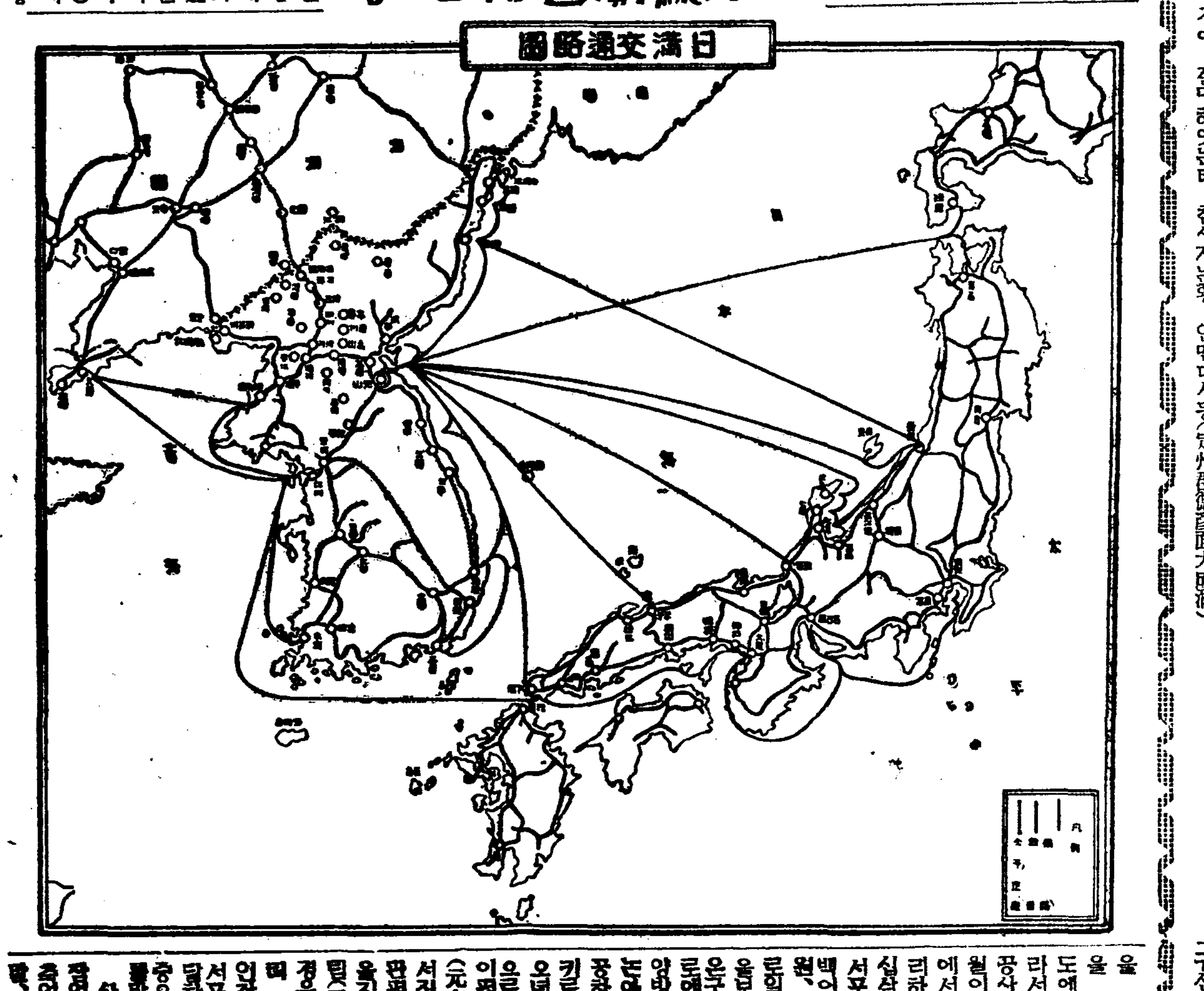
이철도전통을 대하야 자장기대되는것은 무진장의 지하자원의개발이다 즉 교통관게로 우량광구라할지라도 그보고를 개비(開屛)하지못하던것이 여선의전통으로 인하야 채굴이왕성하야질 운명에노여잇다. 그리하야비상시 국책수행에 엿서 가장중요성을 떠인 금, 철, 석탄, 탕스텐의 오대광을 비롯하야 은동, 아연, 기타수다한 광여 속속채굴되여갈것이니 벌써 굴착중의 광구만도 백칠팔십에 그산액이 새백만원에 달하니 개위 조선의 굴지할만한 대금광겟다 그중 성천(成川)의금、제천(价川)의철、곡연、무연탄광가튼것은 대표적의것이다。

윤—도처에 금산이 만호지국 그년산액이 어백만원을돌파
석탄—년산고 유만톤삼십만원에 달하는 안주탄을 비롯하야 매장양이억톤의 북부탄전(北部炭田)이며 매장양이억천만톤의 고원(高原)무연탄전 유명한탄전으로 평원선개통을 가다려 개발될것이다

이상과가티 평원선 연선및 그배후지에는동산 임산 광산이풍부하야 동선의 전통과 더부러 수면중의 자원이 속속개척되여갈것이니 어선이가진바 산업경제교통상의 의의는 중대하다

(寫眞은 日滿交通略圖)

元山特派員 卞龍甲記



長篇小說 林巨正

洪碧初 作 金熊超 畵 【114】

소굴(八十二)

꺽정이 말끄테 황천왕동이가 고개를 외치며

「백손이가 녀석은것을 한개야니라 깜냥업는짓을 햇세요」

하고 말하엿다.

「깜냥업는짓이 무슨짓이야」

「주 석와헌니다 그래두 제법 이놈치구 저놈치구해서 사령들중의 몸에 상처기하나 안나구 서한놈이 단 한놈에이엿더니 저며는 난생처음으루 큰칭을 해보셈이게지요 한참 치구밧구하는중에 사령한놈이 살그머니 백손이 뒤에 가서 몽치루 뒤통을 나려패서 꼭그라트려노코 여러놈이 대들어서 묵것답니다」

「꺽동이 깨젓스면 죽거자 엿겟구나」

「그러케 몸시깨지지는 안흔모양입듸다」

「옥에 와서 김좌수를 차저봣느냐」

「지금 말슴한이야기두 김좌수에게서 들엇습니다 명녹어의 말을 듯구 곳 음으루 조차나려와서 김좌수를 차저보구 백손이를 빼오루 힘좀 써달나구 청햇더니 김좌수가 자기힘으루 엇더케할수업는형편을 자세 이야기합듸다 백손이가 사령놈에게 못매를마질때 처서를 임대장의 아들이라구 말을햇다나요 이말을 사령들이 이방에게 고하구 이방이 원에게 고해서 원이백손어를 잡어드려다가 문초를 밧는데 우리가 망복산에 와잇는것까지 다 바루대엇답니다 원이 큰공명할수나 생긴줄알구 백손이를 큰칼씨워서 옥에가두게하구 옥사장이에게면 맷겨두는것이 허소하다구 장교놈을 시키옵을 직히게햇답니다 그리구 서울로청과 감원감영에 보내는보장을은 오늘쯤 떠우게되리라구합듸다」

황천왕동이는 이야기를 다하고 끗트로

「이런일이 생긴것은 구경 저의 불찰인즉 무슨죄책을 나리시든지 ――――받켓습니다」

하고 신구보호할책임 다하지 못한것을 이채하야 말하는데

「네게는 파실이 업는걸죄책어 무슨죄책이란말이냐」

하고 꺽정이는 황천왕동이를 책망하지아니하얏다 황천왕동이가 그제야 김막동이 업는것을 괴이적게 생각하야 여매안존 배돌석이더러

「막동이는 엇재 아니왓소」하고 물엇다

「알른데 잇데」

「어듸를 갓소」

「바람」

「바람이라니 정상갑이집이요 거기는 엇재 갓소」

「이야기하자면 자네이야기만 못지안케 길겟네」

배돌석이는 이야기가 길다고만하고 고만더 뭇지안흔것을 서림이가 간단하고도 조리잇게 헤웃배 들어왔다 돌우보낸 사정을 이야기하야 황천왕동이에개 들려주엇다.

「막동이가 혜음녕패에게 욕이나 보지안흘까요」

「혜음녕패가 저이괴수의 복수할하러는지 동으면모르지요 그렁다는 한량하우 상감이의 유족(遺族)들이라두 우리에게 복수할생각은 먹지못할게요」

「막동이가 대장형님께 욕설하며 대들기까지햇다면이요」

「일세 미처서 날뛰어지 말은 정신 가지구야 될말이요 설혹 우리에게 복수할맘을 가진자가잇드래두 저이들 끼리 못하게 맘될께요 웨 그런고하니 패중의 하나가 서울든짓옥하는날이면 일불(一不)이살불중(殺不通)으루 전패가망할껍 잘뭘 아니까」

서림이가 황천왕동이와 수작하는것을 곤치뒤에 꺽정이불보고

「엇더케하실랍니까 이천을 곳가보서야지요」

하고 물으니 꺽정이는 허블하면 좀 차고

「할수잇소 가봐야지」

대답하고나서 바로 황천왕동이를 돌아보며

「우리는 이천으루 갈테니 너는 몬안에 들어가서 한온이를 차저보구 이사두 엇더케하는지 물어보려니와 전옥옥사가 어느때쯤 결말이 날까얼어봐달라구해라 알어보는데 날짜가 결린다거든 며칠을묵든지 아주 똑똑이 알구오너라 그러구 바룰티 가서 막동이 보구 이리 다시오지말구 바루 청석골루 가라구말해라」

하고 말을 일럿다。

꺽정이가 외아들 백손이의일어 급하야 정옥파옥은 중지하고 이봉학이 배돌석이 서림이 세두령과 신불출이 곽오주두 서인을 다리고 황천왕동이 장수원서 떠나서 이천으로 향하엿다.

世界的으로愛用되는 アンチフラミン

안치후라민(Antiphlamine)은 肺炎·感冒等을 爲始하여 其他各種炎症에卓効가잇는 外塗內治(것트로발러內治하는)藥으로서 各國에서 널니使用하여오든中 더욱 수年과가티 氣溫不調로 肺炎·感冒·咽喉炎·胸痛等으로苦生한 患者에게는 特히本劑의 効果 가偉大함이 證明되엿습니다。

本劑가 普通濕布보다도 卓効가잇는것은 그有効成分이 곳患者에滲透하여 消炎作用을하는同時에 神經을刺戟하는 老廢物을 除去하고 血行을잘되게하여 鬱血을업새는 作用이優秀한까닭입니다。

그럼으로 肺炎·氣管支炎以外에 神經痛·肩胛痛·腰痛等에도 卓効가잇고 또한 婦女의月經痛에도 本劑를 下腹部에바르면 疼痛이停止되고 行經을順調롭게합니다。

또한本劑는 患部에발너도 何等刺戟을 이르키지안코 氣分을爽快케함으로 病院에서는勿論 一般家庭에서도 널니使用합니다。

適應症
肺炎·感冒·肋膜炎·로이마치스·扁桃腺炎·氣管支炎·關節炎·神經痛·打撲傷·乳房炎·月經痛等

製造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外塗內治의家庭聖藥

夏の身支度は出來る丈輕く能率本位に
ノータイシャツ賣出し
十日より
ホームドレス賣出し 一圓三十錢より
新型流行海水着陳列 三階婦人服部
綿物 一圓五十錢より
白ブロード ペンベルグ 一圓八十錢より
―一階洋品部―
丁子屋

コドモのねびえかぜに オイン

大同工業專門學校 生徒募集
一、募集人員 鑛山學科第一學年 約八○名
二、出願期限 昭和十三年六月十六日迄
三、出願手續 入學願書(本校所定用紙)戶籍抄本(出願前三個月以內ニ作製ノモノ)手札形寫眞(半身脫帽出願前三ケ月以內ニ撮影ノモノ)臺紙不要 入學檢定料五圓
四、試驗科目 國語、漢文(講讀作文)英語、數學(代數幾何三角)化學及身體檢查口頭試問
五、試驗日割 六月十八日ヨリ六月二十二日迄
六、試驗場 平壤府新陽里元崇實專門學校跡
七、願書受付場所 平安南道廳內
本校假事務所

림질약
可驚할根治藥!
急慢性男女淋疾에百發百中 藥價三圓 아모리藥을써도안나신분은곡服用하시요
京城府長沙町一四六 濟世堂藥房 振替京城二一二九九番

ダイヤモンド專門 高木貴金屬店 京城本町一 電本九八一番

理想の強力殺虫液 フマキラー

近代科學寵兒
SAFETY
セフティ (세후티)
堅牢無比
高級萬年筆

陰○不感症
セプレピン (男女共用)

淑夫人長興高氏以宿患今月八日午前四時別世玆以訃告

發靷 同月十三日午前八時京城府城北町自宅
葬禮 同月十四日忠南論山郡伐谷面德谷里後麓(自連山驛東三十里)
告別式及返虞除禮·個別通訃廢止

昭和十三年六月八日

夫 金曦中
嗣子 金季洙
出系子 金性洙
侄 金在洙
護喪 金炳魯

經濟朝鮮說苑
公債消化方策
强制保有는必然的運命
物價高와그對策 ⑬

다우는貨幣의 對內價値維持에 關한 對策이다. 周知와가티 滿洲事變勃發及 犬養內閣의登場에依하야 昭和七年以降 多額의 赤字公債를 發行치안코는 收支를 맛칠수 업게되고 이 赤字公債의 發行은 高橋藏相以來 거의 日本銀行引受方法에 依하야 今日까지 行하야온것이다 그런데 日銀引受에依한 赤字公債의發行은 通貨膨脹을 招來하고 그結果로써 物價의 健全치못한騰貴를 齎來하는 危險을 包藏하는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公債發行이 一般으로부터의 公募에 依한것이라면 政府가 一般國民으로부터 그貯蓄된돈을 빌어서 그빗으로 各種物資를購入하며 人件費를

支拂 하게되면 資金은國民의 주머니에서 政府의손으로 넘어가고 다시 政府로부터 國民의 손으로넘어가게되니까 아무리 多額의 公債를 發行할지라도 國內에 通貨膨脹을 招來할事가업스나 日銀引受로 公債를發行하므로 日銀의 金庫中에準備된 銀行券이 政府로 넘어가고 이것이 民間에 撒布되니까 이通貨를 日銀에 還流시키지안으면 一般으로 流通하는 通貨의 量이 逐次增加케된다. 이러케 國民間에 滯留한通貨의 量이 急激히 增加되면 이增加된通貨는 그대로 死藏되지안코 政府로부터 通貨를受取한사람이 이로부터 물건을 買入하든지 或은그

銀行 其他金融機關에 投資하게되어 何如間에結局은 株式其他의 有價證券이나土地 家屋 奢侈品 生活必需品等 各種物의 購入에 向케됨에따라 各商品의 價格을騰貴케하는 結果로되어 延하야서는 物價水準의上昇即通貨의 一般的購買力의低下(通貨의對內價値의低落)를齎來케된다.

如斯히 日銀引受에依한 公債의發行은 通貨膨脹, 그結果로서 物價騰貴의危險性을 가지게되므로 如斯한公債發行의方法을取하는以上 通貨膨脹을防止하는 對策이必要케된다 此에對하야 이미高橋藏相時代부터 通貨價値의 維持를講究하야 此에對한對策에 留意하여온터로 그對策이라는것은 所謂「오-푼·마-켓트·오퍼레-슌」에依한公債消化에不外하다. 高橋藏相에依하야

開始 된「오-푼·마-켓트·오퍼레-슌」은 政府가撒布한資金이 民間에滯留되면 그資金으로써 日銀이 政府로부터受取한公債를購入케하도록하고 이에依하야 政府가 撒布한通貨를 다시日銀金庫속에還流케하는方法이엇다. 即이日銀의公債賣却이圓滑히 계續되면 公債를公募한것과 가튼結果로되어 通貨膨脹이 이러나지안는다. 이가티 政府가 一般國民으로부터 日銀保有의公債를買케하는方法은 低金利政策의 運用에依하는것이오 强制나勸誘에 依한것이아니다. 即日銀으로부터 그公債의賣却을受하는 保險會社等의 金融機關에서와가티 各自의營利觀念에基한것인바 勿論이에는 公債以外에 投資對象이되는것이적고 또一般國民이 이것을

浪費 에充하는傾向이 잇지안흔 두가지事情이 重要한 要素가되엇섯다.

「오-푼·마-켓트·오퍼레-슌」에依한公債消化는 所期의成功을 收하얏스며 이는 結局 公債消化가 高橋藏相時代까지는 支障업시 運營되어 年年多額의資金이政府에依하야 消費되엇슴에不拘코 이것이物價水準의 騰貴에影響을 提起할程度는 되지 안하얏섯다.

그러나 二·二六事件以後의 政治情勢의 急展開, 日支事變의 勃發에依하야 我財界는 準戰時體制, 戰時體制로 急히移行되고 赤字財政膨脹도 더욱急步調로된結果 通貨價値維持의 對策도 從來와가튼 公債消化만으로는 안되게되엇다. 即赤字公債의發行額은 飛躍的으로增加되엇슴에對하야 從來公債買入의

中心 이되든 金融機關의 公債消化力은 生産力擴充工作의 進行에따라 一方資金需要의增加와 同時에 [illegible] 한편 預金의增加가 [illegible] 各民間 金融機關의 [illegible] 各自의 自由行動에 맛기어서는 圓滑한 公債消化가 漸次 期待키어려운情勢로 되엇다. 이와同時에 金利引下가 低金利政策의 妙味를 顯著히 減殺시키게 되어 公債消化의 圓滑한進行을 阻害시킨 有力한 事情이 되엇던것이다. 왜그러냐하면 低金利의 强行에依하야 公債消化가 一時的으로 刺戟되는 [illegible] 金利의 急激한低下는 貯蓄心을減退케하고 [illegible] 明白히되엇다 그러하야

昨年 七月 日支事變勃發以後의 公債消化策은 從來의 消極的에서 積極的으로 轉換되엇다. [illegible]

이 積極方針은 現在까지는 主로「모-랄·사포-트」(道德的後援)의 形態로 되어잇고 [illegible]「公債의 强制保有」는 아직 [illegible] 形式的으로도 [illegible] 公債의 强制保有에 移行할것은 必然的運命이라 하야도조타.

原料配給統制機構
中小業者指導助成은二次的
工業組合令不遠間公布實施

朝鮮工業組合令은 法制局의審議가 近日中에終了될터로 不遠間公布될터인데 同令이 實施된後는 고무製品, 洋襪, 메리야스, 陶瓦, 磁器, 人絹染色, 電球, 琺瑯鐵器等各生産業者의 旣存組合은 同令에基한 工業組合乃至同聯合會로 고치게되엇다.

內地의 工業組合이 그主要目標를 業者統制에두고잇슴에反하야 朝鮮에서는 生産業의現在의發達段階에鑑하야 中小業者의 共同施設的意義를多分히 가지고 原料의共同購入, 製品의生産配給等中小業者의指導助長을 主要任務로할것으로考慮되엇슴에不拘코 昨今의 急激한戰時統制强化의大勢로보면 當初의共同施設的機構보다도 原料配給其他에 關하야 統制機構로서의 色彩를濃厚케할것이必至라한다

金、鉛增産策으로 銀政策에着目
增産과價格引上研究

産金增産에 對해서는 當面한 最高度의 要求에 對應하고저 官民一致하야 모든 增産對策이 進行하고잇거니와 이促進의 一策으로 總督府에서는 새로 銀의增産과 價格政策에 着目하고잇서 極히注目되고잇다 即

銀은 金鉛等과함께 産出되어 銀의 增産을 圖하는것은 必然的으로 金과 鉛의 增産이되는셈인데 現在 銀의 價格은 자못 低價에 沈淪하고잇는 關係上 銀을 主로한 金鉛鑛은 손을대지안코잇는 狀態이므로 此際에 銀對策을 積極化할必要가잇다는것이다

總督府에서는 이對策으로 銀地金의 買上價引上其他에 關하야 研究를 開始하고잇서서 鑛業界에 極히 重要한 波紋을 投할것으로보인다

上半期金融機關
業績大體好轉

上期의金融機關業績으로서는 資金調整法의 重壓下에 前年下期의 深刻한資金難을 苦難한뒤이나 問題의 長期資金取入은 殖銀 東拓이모두 豫定計劃대로手配를 終한 一方 預金方面에는 農産物의增産과 價格高에 依하야 土地에의 資金固定의 傾向이 中止되엇스므로 漸次增加를 示하고잇다 他方貸出은 資金調整 貸出自制의 效果가 如實히 나타나 貸出이 相對的으로 收縮을 示하고 前期末에 比하면 堅實化한것이 顯著하다 [illegible] 前期만못한것이 一時的이 되어 若干의 收益은 [illegible] 그 基調는 顯著히 强固케되엿다 銀行, 信託, 無盡을 通하야 依然 增配는 至難이나 勿論減配는 一社도업서 [illegible]

産金會社創立委員

産金振興會社는 近間同法을施行하는 同時에 創立準備에 着手할터인데 朝鮮關係로는 左記諸氏가 創立委員에 任命되게 內定되엇다

- 殖産局長 穗積眞六郎
- 東拓鑛業社長 田淵勳
- 朝鮮製鍊社長 松本誠
- 朝鮮鑛業開發社長 野口遵
- 殖産銀行頭取 林繁藏

東拓産金資金 六百萬圓申請

東拓의産金資金은 現在一千五十萬圓의認可額中 實際貸出을본 額은五百萬圓이오 남어지五百萬圓도 今月中에貸出될터이다 東拓에對하야 融資申請은 六百萬圓 한다

水産物檢査好成績

十三年五月中의 水産物檢査成績은 八八七、五五四個八槽中合格 八〇九、五五八個八槽、不合格七八、〇〇六個로서 前年同期의五二八、八六六四個一槽中合格四八三、八一六個一槽 不合格四四、九四八個에比하면 總數合格이모두二倍에 가까운 好成績을收하얏는데 主要製品中 合格比率을 增加한것은 乾海、鰯搾粕、鰮魚粉等이다

道農會豫算
全朝鮮二百九十萬圓
比前年度八十萬圓增

總督府農林局調査에依한 昭和十三年度 全朝鮮各道農會의豫算總額은 二百九十二萬八千五百九十九圓에 達하야 前年度豫算에比하면 八十萬一千九百二圓의 增加를示하엿다 그 內容을示하면 如左하다(單位圓)

▲一般會計	一、七一五、六五二
事業費	四七七、七九二
補助費	六八八、二九〇
▲特別會計	一、三二二、九四七
農業倉庫	六五二、三四五
畜牛共濟	二四八、一〇五
耕地整理事務受託	四五、二四一
棉花栽培損失補償	一八一、一六八
種牛生産	七四、一四二
家畜救濟	一一、九四六

東滿洲鐵道認可

東滿産業의構成分子인 東滿洲鐵道會社(資本金一千萬圓三百萬圓拂込)는滿洲國法人으로서의 認可手續을取하얏든바 八日正式으로認可되엇는바 同社의 社長은 中村直三郎氏, 副社長 齋藤固氏로內定하얏다

銀增産計畫
商工省近間方針發表

【東京】商工省에서는 各種鑛石의開發에 努力코잇는데 이번에는 銀增産具體化方針을 發表할 모양이다 即銀은 國際決濟用에 使用할수잇는點에서 金의增産과 同一한意義를 가지고잇고 설령決濟用에 使用치안는때도 中國聯銀에 確立하야 이에依하야 北支의 民心安定을 得케되므로 그增産方法에對하야 考究中이다 銀은 金銀鑛其他各金屬과 混合含有되어잇스므로 銀만의獎勵는 問題되나 近間어떠한方法으로써發表하리라한다

天津經濟槪況

朝鮮貿易協會天津支部로서의報告에 依하면 天津五月中의 一般經濟槪況은 中支政權의 合流가 目前에 迫到하얏스므로 從하야 商權도 積極的動向을보이고잇고 津浦線의 開通은 兩地의 交流에 頻繁을 豫想케한다 事業方面에서도 邦商의 進出이 官憲法其他影響으로顯著히進出을 阻害되엇스나 順次國策線에 沿한事業資本은 制限이 緩和되는中이狀態이다 이제各方面의 槪況을 記하면 如左하다

一、金融=中北支間의 商品市勢는 金融上의 不均衡이 原因이되어 五月上旬頃부터 兩地間의 物資의移動은 漸次 旺盛케되고 外人筋商의 上海向이 相當額에 達하얏스나 臨時政府當局에서는 資本平衡의 立場에서 그對策을 樹立할必要가잇서 邦人銀行經由는 對上海間取引에 對하야서는 嚴重한監督을하고 一萬圓以上의 金額에 對하야서는 信用狀을 發行케되엇다

二、貿易=一般으로 閑散하며 輸出入商品共히 市場에 滯貨가 [illegible] 輸入은 各界蕭頹가모두輸入品의 山積하고 一部入港船의貨物陸揚은 荷役不能으로積出地埠頭까지現出하얏다 從하야 各船會社倉庫는 此等輸出入品의 荷動沈滯로 全部滿庫되엇스며 五開의倉庫保管料値上을 發表하기에 至하얏다

一、棉花=船舶不足과 爲替管理法에依한 輸出難으로 各庫가 모두滿庫이오 大部分은 停滯이다 上海紡績側이 中旬頃부터三開程度의操業을開始하얏스므로原棉準備가必要하야北支棉에의需要가殺到되고 若干荷動이잇는데 이原因의主要한것은 上海方面의 對外取引困難으로米棉入手가不能한때문이다

一、麵粉=雜穀其他의 食糧品의 暴騰에도不拘코 一般으로 漸落되엇다 五月下旬에至하야

一、土建界=建築界의 最盛期에 入하야 工事材料準備로 木材 石灰界는 大混亂戰을 呈코잇다

上海工業復活

朝鮮工業協會에 드러온 上海 [illegible]

人絹과「스·파」生産激增
人絹生産日本第一位

【紐育八日發同盟】米國著名의人絹雜誌 레-요-ㄴ誌는 八日發行의 六月號에 恒例와가티 世界人絹生産統計를 發表하엿다 이에依하면 一九三七年의 世界의 人絹及 스테이플의 生産高合計는 十八億九百萬磅으로 一九三六年에 比하야 實로 四億九千萬磅의 激增을 示하고잇다 그中 注目할것은 日本人絹生産高로 三億三千四百萬磅으로 依然 米國을 凌駕하야第一位를占하고잇다

陸軍豫算使用
具體的方策

朝鮮軍報道班發表=陸軍省에서는 最近副官通牒의 形式으로 陸軍一般에對하야 昭和十三年度豫算使用의 具體的方策에 關하야如左히示達하엿다

昭和十三年度陸軍豫算使用의 具體的方策

一、海外拂에 關한 事項

1、輸入品使用은 極力制限又는廢止하기로하고 特히左의諸項에 注意할것

가、輸入品이 國産品에 比하야 廉價한 境遇라하더라도 會計法規에 反치안는限 極力內地品을 使用하도록 一層注意할것

나、使用을 制限或은廢止하고 又는 國産品或은 代用品을使用할 主要品目은 左記를目標로할것

自動車、燈油、醫療器械、理化學機械、計算器、라이프라이트、金屬製品、書籍、製服地、알콜카、其他輸入羊毛製品、皮革製品、麻絲等

다、皮革製品其他輸入品使用製品의規格을 切下할것

라、紙類、綿布、其他輸入原料使用製品에對하야 極力消費節約을 圖할것

마、海外와의 電報는 極力無線電信을 使用할것

2、海外拂을 極力節約하기로하고 特히左의諸項에 注意할것

가、官吏等의 海外及留學生의 派遣等은 極力制限할것

나、外國船舶의 使用 外國保險會社와의 契約은極力排除할것

다、在外諸官衙의 現地支出을 極力節約할것

3、滿洲及北支中支等의 事變地에 잇서서의 第三國物資의 購入과 第三國拂을極力抑制할것

4、金의 國際貸借의 決濟手段으로서의 重要性에 鑑하야 極力 이것의節約에 努力할것 例컨대 眼鏡類等에 金文字를使用하는것과 如한것 又는 各種記念品으로 金盃、金메달類를 製造配布하는것과 如한것은 嚴히이를回避할것

二、鐵其他의 金屬、石炭、石油等의 燃料其他 당장에 我國에서 不足한 物資에對해서는 相當한程度의 苦痛을 忍耐해서라도 極力 이消費를 制限節約할것

三、前拂制度에 依하야 事業의 豫備資金을 招來치 안도록 注意하는 同時에 他面 一時에巨額資金을 撒布하는일이업도록 適宜分割拂等의 方法을 講究할것

四、經費의 地方的分布에 對해서도 各地方의 經濟的實情에 適應하도록 注意하는 同時에 所謂貧弱町村等에 對한 分布를 可及的 厚히하도록 考慮할것

五、派遣軍駐屯地에 잇서서의 軍人軍屬으로하여금 可及的現金을 携帶치말고 銀行等에 預入케하도록 勸獎할것(이事에關하야 必要한 境遇에는 銀行店舖、郵便局等의 增設을 考慮할것)

今日의市勢(九日)

株式 高寄後反弛

前場伸惱 伸力은 遲遲나 漸高步調로 强硬한 市勢는 今朝의 外電高를 入하고 東阪寄付는 主力株中心의 一齊高이엇스나 材料의 支援이 업서 頭重伸惱狀이된것을 보고 當地亦東新五高 鐘紡二高로 高寄하엿스나 다시反弛閑散裡에 推移되다가 結局鐘紡二百五十一圓九 東新百五十圓三 [illegible] 八十圓五에 大引되다

後場閑散 後場은 反弛裡에 東新六低 鐘紡九低로 寄付

○資金商店員褒賞=京城時計貴金屬商工組合에서는 該組合規約에 基한 優良店員表彰式을 六月十日午後一時 京城商工會議所에서 擧行하기로되엿다는데 被表彰者는 滿十年勤續者三名 滿十五年勤續者三名 滿七年勤續者八名 滿五年十三名 滿三年二十五名 都合五十二名에 達한다고

大勢는樂觀乎

目前은 無材料의 閑散이요 前途觀難의 氣迷狀態로 人氣는 强에不拘코 上伸力이 缺乏된狀態나 그러타고 大勢에 弱氣를 가저야 하겟느냐하면 그것은 雜株가 採算圈內에들고 諸株의 大幅의 昂騰만으로 보더래도 大幅低落은 雜筆이란것을 直覺할수가잇스며 二·二六事件時의 百十九圓三 昨年의 百二十七圓 一昨月의 百四十圓丁의 大勢二番底構成은 勿論中勢도三番底를 構成한 階段에 到達하엿스므로 漫然한弱氣는 禁物이며 따라서 賣込할時期는 아닐듯하다 그러므로 假令此邊에서 又復一押이잇다 하더래도 그深度는可知며押目은 買進할것이니 여기서 小幅浮動에 繼續되더래도 이頭重狀이나 伸力缺乏에 取하야 賣込하는것만은 操心하여야 할것이다 材料를 기다리면서 더 金融緩和를繼續하야 取組의減少取組內容의移動等으로 伸力을 培養하여야 할것이아닌가도 생각된다

相場所感

株 …人氣는 取强하고 市勢도 漸高步調로 地合은 强調나 頭重伸惱로始終 ▲말하자면 사구는 시프나 때가 未熟했고 ▲오르기는 올듯한根據를 아직은 未發見한셈 ▲賣物이 踏上치안는 市勢는 아무래도 買煽이 어려운 것이 常例 ▲介石屈服도 아직은 時期尚早의 感이 不無하고 期末金融도 平穩이 豫想되나 이以上의 金融緩慢도 期待難 ▲長期戰은 覺悟되고 統制는 더욱强化될것이니 ▲어려한때에 賣方의 動搖를 期待하기는 容易치안흘듯 ▲그러하면 膨脹時代의 低保合을 相當한 期間할모양? [illegible]

米 …阪地五圓三十一錢의 高價를 示하엿슬때는 當地二圓四十七八錢으로 軟保合을 示하더니 [illegible]

阪仁一擴一縮

[illegible]

期米 膠着不動 細刻

前場浮動 [illegible]

後場同調 [illegible]

人氣漫然强化

[illegible]

推進力이缺乏

[illegible]

國債釘着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今日財界(九日)

[illegible]

正米 京仁高나

京城上進 [illegible]

仁川上進 [illegible]

釜山釘付 [illegible]

木浦下澁 [illegible]

群山少弛 [illegible]

大邱軟化 [illegible]

期米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通三丁目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마루타마取引店

京城 益康 金益證券

海外經濟(八日)

[illegible]

銀行券(八日)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illegible]

鰯油粕·麥粉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銀價

[illegible]

正米

[illegible]

雜穀

[illegible]

綿絲布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京城物價(九日)

[illegible]

株式

[illegible]

期米

[illegible]

綿絲

[illegible]

棉花

[illegible]

人絹

[illegible]

生絲

[illegible]

砂糖

[illegible]